

2002학년도

석사학위(Th.M) 청구논문

**칼빈의 구원과 관련된 가까운 원인들과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재선

칼빈의 구원과 관련된 가까운 원인들과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하여

A Study on the Nearer Causes Relating to
Redemption and the Proper Position of Free Will
in the Calvin's Theology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Th.M)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6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제 선

김재선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석  *Yoon Seok*

審査委員 김민준  *Kim Minjun*

審査委員 이 은선  *Yoon Sun*

審査委員 김민준  *Kim Minjun*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3 년 6 월

감사의 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대상29:1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서 주셨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지난 5년간의 신학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깊은 샘에서 진리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 특히 2년간의 Th.M 학업을 통한 깨우침으로 인한 깊이와 그 깊이 속에서의 넓음은 날마다의 자유함으로 연결되었기에 행복함이었다.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의 인도하심이 계셨고, 또한 김영규 교수님으로부터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서이다.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교수님의 가르침과 지도는 나의 작은 눈을 크게 뜨도록 해주셨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글을 쓰에 있어서도 독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일깨워주셨다.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린다.

김성봉 목사님께서서는 진리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셨고 참된 겸손함의 도리를 몸소 보이시면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던 30대를 지냄에 있어서 화평교회 이재욱 목사님으로부터의 목회적인 가르침 또한 귀한 것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신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해주셨고 멘토로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어려운 시대에 함께 공부하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 홍상표 목사·김지훈 전도사·윤석주 전도사·허찬 강도사·김경선 전도사 그리고 Th.M 원우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묵묵히 내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다윗과 요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여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앎을까 하는 심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바르게 전해지고 가르쳐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가기를 기대한다.

2003년 6월

김재선

목 차

I. 서론	1
A. 문제 제기	1
B. 연구 방향	5
II. 본론	7
A. 칼빈이 비판한 공로사상 및 신인협동설에 대한 문제	7
1. 공로사상에 대한 칼빈의 비판과 그 근거들.....	7
1) 신론에 의한 공로사상 비판.....	7
2) 인간론 및 기독교론에 의한 공로사상 비판.....	10
3) 죄용서의 성격으로 인한 공로사상 비판.....	11
2. 성화에 있어서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과 그 양태들.....	13
1) 신론 및 인간론과 그 근거들.....	13
2) 기독교론과 그 근거들.....	16
B.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한 정의	18
1. 칼빈에 따른 구원과 관련된 원인들.....	19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칼빈의 해석.....	22
3. 인간의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건일반에 있어서의 인과론.....	30
1)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30
2) 어떻게 한가지 사건에 대해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하는가에 대해.....	34
C. 아담의 자유의지와 책임	35
1. 타락전 아담에게 있었던 의지의 자유.....	36
2.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상태.....	39
1) 사람의 자기 인식.....	39
2) 아담이 타락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	40

3. 원죄와 인간의 부패한 본성.....	42
1) 원죄의 정체.....	42
2) 육적인 인간의 부패.....	46
D.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	49
1.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로서의 자유의지.....	50
1)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자유의지의 자리.....	50
2)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독특한 길.....	55
3)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58
2. 진정한 겸손.....	60
1) 자유의지론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위험성이 있다.....	60
2)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61
3.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	63
1) 모두 다 하나님의 것.....	63
2)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68
3)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가운데 움직인다.....	69
III. 결 론.....	72
참고문헌.....	76

I. 서론

A. 문제 제기

루터는 그의 책 「노예의지론」에서 자유의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루터는 말하기를,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유 의지’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손에 남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수많은 위험들, 대적들, 마귀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내가 나의 지반을 굳히고 나의 ‘자유의지’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왜냐하면 마귀 하나가 인간 전체보다 더 강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이나 대적이거나 마귀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살아서 일을 한다면, 나의 양심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마음 편한 확신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셨는지에 관한 초조한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행위를 통하여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경험은 이를 입증해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질리도록 잘 배웠고, 그것은 나 자신의 커다란 상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내 자신의 의지의 주관으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관아래 놓고 나의 일한 것이나 달린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자비에 따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금에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내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크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나 반대도 하나님을 무너뜨리거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갈 수 없다는 마음 편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보다 크시매’(요 10:28-29)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몇 실제로는 다수가 구원을 받았다. 반면에 ‘자유의지’의 권능을 통해서 는 결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멸망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나의 행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

신 호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마음 편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내가 거의 일을 하지 않거나 나쁘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낮게 만드신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다.”¹⁾

이렇게 루터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같은 맥락에서 칼빈 역시 그의 「기독교강요」 II권 ii장에서,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바울의 에베소서를 인용하여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다.”²⁾라고 했다.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엡1:17)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루터나 칼빈의 바른 가르침보다는, 이들에 의해 비판되었던 피기우스나 펠라기우스 또는 반펠라기우스 그리고 알미니우스의 잘못된 신앙관이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교회는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신인협동설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한다’고 하는 인간 공로사상³⁾을 끊임없이 존속시켰다.

1) 마르틴 루터, “노예의지론”, 「루터 저작선」, 존 디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p.256-257.

2)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II, ii, 21. (이하 ‘*Institutio 1559*’로 표기함.)

3)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은혜론」에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성경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공로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음의 말씀들을 주로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증거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 (대하 15:2)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니민의 우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대상 28: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못 마음을 감찰하시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거스틴은 이들이 이 구절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다. 즉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이미 있었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든 사실에 우리의 공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공로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만나뵙게 하신다고 이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앞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피기우스는 주장하기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있는 은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다.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림받느냐 하는 것은 神意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여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사람의 개인적 의지에 의하여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칼빈은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 죄인은 각각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런 이해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구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고려해야만 위 구절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다른 의미의 성경 구절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15:10)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사람의 의지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말한 후에, 즉시 이 말을 제한하는 의미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라고 첨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비록 인간의 의지와 공로에 대한 성격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표현되고 있어도 성경 전체의 정신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의 성격임을 그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총의 기초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를 촉구하는 말씀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어거스틴은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 김종흠 역, 생명의 말씀사, 1990, pp.177-178.

- 4) 존 칼빈,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김기수 역, 생명의 말씀사, 1991, p.315. -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p.259: “Quum autem in erertenda praedestinatione consentiant ambo, postea tamen in commentis suis sunt diversi. Fingunt ambo, in libertate nostra positum esse, ut se quisque in adoptionis gratiam electi sint vel reprob: sed singulos sibi utramvis fortunam suo arbitrio statuere. Quod alii credunt evangelio, alii increduli manent, non ex gratuita Dei electione, vel ex arcano eius consilio, sed ex privata tantum cuiusque voluntate provenire hoc discrimen.”

영원한 운명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는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죄된 본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각자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도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기된 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신이 믿기 전에 성령에 의하여 중생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구원 얻는 일에 공헌할 수 있다.”⁵⁾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공로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을 따르는 선에서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듣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차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하지 못하며 그것은 그의 악한 본성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죄인 된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택하지 않으며, 사실은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결국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의 사역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다시 살게 하심과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사역에 의해 죄인은 중생하게 된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믿음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선물은 아닌 것이다.”⁶⁾라고 하여 인간의 전적부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깊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믿음은 근원이 아니라 통로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의식이 미치는 곳으로서 인간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통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식이 있는 특별한 것이다. 그러

5) D.스틸/C.토머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상화 역, 도서출판 엠마오, 1996, pp.21-22.

6) Loc. cit.

므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한다. 이 자유의지의 한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 내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작정을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더 깊은 이해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다.

B. 연구 방향

종전까지 연구 발표된 논문은 칼빈의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을 발굴해 내어 명제화 한 것이 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이며 주요한 원인으로 그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 받아야 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악의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들과 구원의 서정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종속되어 다루어지고 있음"⁷⁾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구원론이 근거한 원인에 대해 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먼저, 동력인으로서 유효적 원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둘째로, 질료적 원인으로서는 용서의 원인,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상고해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함을 밝힌다. 셋째로, 형식적 원인으로서는 기구적 원인은 믿음으로 그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원인으로써의 목적인(finalis causa)은 신적 의의 증명과 선의 찬양이라고 증거되어 있다.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다고 증거한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3:26)고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7) 안성균,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하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M) 청구논문, 2002, p.62.

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 믿음으로 받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되어진 연구에 이어 고찰해야만 하는 주제가 바로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라고 여겨진다.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를 규명해봄으로써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형태로서의 위치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 할 것이다.

본 주제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사상에 대해 칼빈이 비판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일반적으로 인식조차 회피한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살피게 된다. 그리고 아담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 고찰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의지의 자유를 알아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였는가를 원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본 논고에서 추구하는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형태로 주셨음을 밝히게 되고,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가까운 원인들과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소견을 제시하고 이 고찰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8) 임성찬,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M)청구논문, 2002, p.10.

II. 본 론

A. 칼빈이 비판한 공로사상 및 신인협동설에 대한 문제

이에 앞서 서론부분에서는 오늘날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에 의해 생겨난 공로사상 및 신인협동설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가까운 원인들을 밝히며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드러내어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져야 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들의 정의와 인간 자유의지에 대해 논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제에는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칼빈의 비판 내용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1. 공로사상에 대한 칼빈의 비판과 그 근거들⁹⁾

1) 신론에 의한 공로사상 비판

공로사상의 시발점을 의미하는善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 볼 수 있다는 칼빈의 말은 구원의 서정이 택자들에게 제한되어 일어난다는 말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의 원인(electionis causa)과 관련해서 사람 밖에서 찾아야 되며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도 그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흘러왔다는 결론을 칼빈은 내린다.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¹⁰⁾고 언급하였다.

9) 이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은 김영규 교수의 책 「칼빈의 성화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10) *Institutio 1559*, III, xxi, 1: "Nunquam liquido ut decet persuasi erimus salutem nostram ex fonte gratuita misericordiae Dei fluere, donec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선의 시초”¹¹⁾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으셨다(nihil extra se considerasse).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것이다. 우리를 선택한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은 은혜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의 원인이고 그 반대는 아니다. 본래 인간의 행위든 다른 피조물의 행위이든,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못된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¹²⁾고 하였다.

창조라는 개념도 이미 예정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종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³⁾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공통으로 택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quaedam imago)이라고 하였고 가나안 땅도 하늘나라 처소의 증표(caelestis domicilii pignus)라는 사실로 이해하였다. 복음의 선포도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선택을 완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로 본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조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보다 내적인 부르심이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부르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이 주관함으로 어떤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않된다고 한다.¹⁴⁾

innotuerit nobis aeterna eius electio.” (이후 다루어질 라틴어 원문자료는 김영규 교수의 책 및 Th.M 강의안 등을 통해 소개되었던 것에 주로 의존한다.)

11) *Institutio 1559*, II, iii, 8: “Certe boni exordium non aliunde quam a solo Deo esse facili et certa ratione liquet.”

12) *Institutio 1559*, III, xxii, 3: “Idipsum quod dixerat videtur magis postea confirmare, ubi ait, secundum propositum voluntatis suae [Ephes. 1. a. 5], quod proposuerat in semetipso; siquidem Deum in semetipso proposuisse, perinde valet acsi diceretur nihil extra se considerasse, cuius rationem in decemendo haberet. Itaque protinus subiicit huc pertinere totam electionis nostrae summam, ut simus in laudem divinae gratiae. …Porro haec gratuita non erit, si in suis eligendis Deus ipse qualia sint futura cuiusque opera reputat.”

13) *Institutio 1559*, III, xxi, 5.

14)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25.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electionis testimonium)요 영광은 선택의 완성(complementum)이다.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mater fidei)이다.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manifestandae symbolum)이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택(continua Dei beneficia)이 있다면 선택의 열매(electionis fructus)이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슨 덕이든 선택의 결과(quiquid virtute in hominibus apparet, electionis esse effectum)이다. 예정하셨으므로 영원부터요 하늘의 복을 주시므로 영원까지라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증보자 이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선택권(ius eligendi communiter cum Patre)을 주장하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택의 창시자(electionis authorem)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¹⁵⁾

또한 성령이 믿음의 저자(author)요 원인(causa)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성령이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한다”¹⁶⁾는 의미에서이다. 영혼의 참된 지성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라면, 마음의 확신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그렇게 성령의 보증(Spiritu arrham)이 확신의 기초(fundamentum fiducia)라고 할 수 있겠다.¹⁷⁾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칼빈은 유기자들에게 제한되고 신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보복의 심판(iudicium vindicatae)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축복인 징계의 심판(iudicium castigationis)을 구별하였다. 전자는 유기자들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으로서 일종의 지옥의 통로(quoddam inferorum atrium)로 묘사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aeternam damnationam)를 멀리 바라보게 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음부를 위한 전주곡(praeludiis ad dirissimam gehennam)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그렇게 해서 생활을 고치거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정한 교육을 촉진시키고 이 사실에서 진노보다도 자비를 더욱 분명히 증거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벌하시는 목적도 오직 교회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시키려는데 있다고 본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태도가 그렇게 만든다고

15) Loc. cit.

16) *Institutio 1559*, III, ii, 33: "Neque enim fidei tantum inchoator est Spiritus, sed per gradus eam auget, donec ea nos in regnum caeleste perducat."

17) *Institutio 1559*, III, ii, 36.

덧붙였다. 칼빈은 이런 구별에 의해서 벌이나 징계도 공로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¹⁸⁾

2) 인간론 및 기독교론에 의한 공로사상 비판

“인간의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악한 일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선을 향한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¹⁹⁾고 칼빈은 말한다. 같은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단정하시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런 원수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거나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원수들을 용납하시는 일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만족 능력(satisfactionis facultas)을 내세우는 것은 그 은혜를 악하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된다”²⁰⁾고 하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해서 좀더 이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충만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연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최소한의 능력의 기대조차 일체 배제하신다”²¹⁾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와 같이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손상시키고 있는 한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과 함께 보상과 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인간 자체나 그 행위에 전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

18) *Institutio 1559*, III, iv, 31-35를 요약 정리하였다.

19) *Institutio 1559*, II, iii, 5: “Qua igitur peccati servitute vincta detinetur voluntas, ad bonum commovere se non potest, nedum applicare; eiusmodi enim motus, conversionis ad Deum principium est, quae Dei gratiae tota in Scripturis tribuitur……Porro quod libertate abdicatam voluntatem dico necessitate in malum vel trahi vel duci: mirum est sicui videatur aspera locutio, quae nec absonum habet quippiam, nec a sanctorum usu aliena est.”

20) *Institutio 1559*, II, iii, 9: “sicut palmas non potest fructum ferre a seipso, nisi manserit in vite: sic nec vos, nisi in me manseritis.”

21) *Institutio 1559*, II, iii, 9: “Non dicit nos esse infirmiores quam qui nobis sufficamus: sed nos ad nihilum redigendo, omnem vel exiguae facultatulae opinionem excludit.”

다. 그리스도의 무죄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며 순결하며 결백하다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우리의 추악이나 불결, 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²²⁾ 예를들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탕감의 비유의 경우, “그 여인의 사랑이 사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거”²³⁾라는 뜻으로 칼빈은 해석하였다.

3) 죄 용서의 성격으로 인한 공로사상 비판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할 때, 무기로 사용하였던 물음은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다. 첫째로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발적인 것(voluntarium)이라면 그러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칼빈의 대답은 죄란 필연적이라면 그런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요 자발적이면 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더 많이 논의 될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칼빈은 아니라고 한다. 죄로 인하여 변형된 인간이 악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할 수 없다는 것이 창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naturae corruptela)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타락과 함께 동시에 죄의 부패가 지향적 행위나 의지 전에 존재하여 인간의 성향이나 태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의 필연성을 지적하였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필연성 때문에 바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일 것이다. 칼빈은 다른 근거로서 마귀(악한 천사)의 예를 들고 있다. 선한 천사의 경우 그들의 의지가 선을 거부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반면 마귀와 같이 필연적

22) *Institutio 1559*, III, xiv, 12.

23) *Institutio 1559*, III, iv, 37: “Quibus verbis (ut vides) eius dilectionem non facit causam remissionis peccatorum, sed probationem.”

으로 죄를 짓는 자는 적지 않게 자원적으로 죄를 지음이 분명하다고 칼빈은 말한다. 결국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원적(voluntarium)’에서 ‘자유(libereum)’로 비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덕행들과 죄악들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으로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 역시 펠라기우스파의 논법이지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으로서 크리소스토무스나 제롬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벌은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받는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 즉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다.

셋째로 만일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같은 본성을 가진 자로서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 원인은 주께서 하시는 일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견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넷째로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권고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택하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외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유기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법규란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데 두고 있다. 율법이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랑이다. 율법은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창조역사보다 큰 역사이다.²⁴⁾

24)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p.28-29.

2. 성화에 있어서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과 그 양태들

1) 신론 및 인간론과 그 근거들

칼빈은 인간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신인협동설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방식으로든 혼합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이며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²⁵⁾고 표현하였다. 또한 그러나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왔다면 우리도 다소의 공로를 나누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우리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은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다”²⁶⁾라고 칼빈은 말했다.

의지를 이성(ratio)과 감각(sensus)의 중간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철학자들과 같이 어거스틴까지도 은총의 도움을 받으면 선을 택하고 은총이 없으면 악을 택하는 능력이 자유의지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칼빈이 인정하였다. 이런 견해가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역사하는 은총(*gratia operans*)과 협력하는 은총(*gratia cooperans*)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협력한다는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특별히 롬바르두스는 우리가 악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를 짓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자유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libertas non impeditur*)고 말하였음을 지적하였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콜라주의자들의 견해는 어거스틴의 견해와

25) *Institutio 1559*, II, v, 15: “Quicquid enim mixturae ex liberi arbitrii virtute affere student homines ad Dei gratiam, nihil aliud quam eius corruptio est: perinde ac si quis lutosa et amara aqua vinum dilueret.”

26) *Institutio 1559*, II, iii, 6: “Atqui siqua esset vel minima ex nobis facultas, aliqua etiam esset meriti portio. Verum ut nos prorsus exinanear, nihil promeritos esse ratiocinatur, quia in Christo conditi sumus ad bona opera quae praeparavit Deus.”

27) *Institutio 1559*, II, ii, 6.

같지 않음을 칼빈은 고증하고 있다. 물론 어거스틴이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였지만, 한편 의지의 부자유성을 종종 표현하였으며, "성령이 없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sine Spiritu non esse liberam hominis voluntatem)"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 주고 있다.²⁸⁾ 기타 교부들의 견해도 그에 대해서 모호한 점들이 있지만, 모든 선행에 대한 공로를 성령께 돌렸던 예들을 열거하고 있다.²⁹⁾

이런 근거를 넘어서 칼빈은 루터처럼 스콜라주의자들의 오해와 견해들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성이나 판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라도, 자연적 은사들³⁰⁾의 부패(naturalium donorum corruptio)와 의지의 타락(pravitas voluntatis)이 아주 분명하다³¹⁾고 주장하였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generalis Dei gratia)이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specialis Dei gratia)이 있음을 칼빈은 인정하였다.³²⁾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택의 은혜로운 선물임에 틀림없다³³⁾고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서 유죄를 증명하는 것으로 남기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릇된 말이라고 설명한다.³⁴⁾ "그러나 어떤 천품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생활에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며, 특별히 성결의 영으로서 신자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똑같은 성령의 힘으로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움직이시며 살리시기(replet, movet, vegetat omnia)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을 거부하거나 멸

28) *Institutio 1559*, II, ii, 8.

29) *Institutio 1559*, II, ii, 9.

30) 칼빈은 이성(ratio)도 이런 자연적 은사들 안에 포함시키면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기형적 잔해처럼 일부분 무력하고 부분적으로 결함되어 있다고 한다: "Quum ergo ratio qua discernit homo inter bonum et malum, qua intelligit et iudicat, naturale donum sit, non potuit in totum deleri: sed partim debilitata, partim vitiata fuit, ut deformes ruinae appareant." *Institutio 1559*, II, ii, 12.

31) *Institutio 1559*, II, ii, 12.

32) *Institutio 1559*, II, ii, 17.

33) *Institutio 1559*, II, ii, 14.

34) *Institutio 1559*, II, ii, 22.

시하는 것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unicus veritatis fons)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것”³⁵⁾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문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³⁶⁾고 칼빈은 말하였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일반적인 천품이 아닌 또 다른 선물(donum)로서 그리고 특별한 은총(singularis gratia)으로서 특별한 조명(specialis illuminatio)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적 이성(humana ratio)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우리를 향한 그의 부성적 은총(paternalis erga nos eius favor)에 대해서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두워져³⁷⁾ 영적인 통찰³⁸⁾이 없고 무한한 혼란(immensa confusio)³⁹⁾만이 가득해 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인간적 이성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어 무수한 오류에 빠지고 또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치며 무수한 곤란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⁴⁰⁾ “인간적 이성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분이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목표로 하지 않는다”⁴¹⁾고 하였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내면적 교사로서 영혼에 생명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선포에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부로부터 듣고 배움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그에게 이를 수 없다.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할 그 근거들은 무엇인가? 물론 거기에서 성령이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다.”⁴²⁾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하루만 조명을 받고 그 후에는 자기 힘으로

35) *Institutio 1559*, II, ii, 15: “Si unicum veritatis fontem Dei Spiritum esse reuptamus, veritatem ipsam neque respuemus, neque contemnemus. ubicunque apparebit: nisi velimus in Spiritum Dei contumeliosi esse: non enim dona Spiritus, sine ipsius contemptu et opprobri, vilipenduntur.”

36) *Institutio 1559*, II, ii, 16: “Quod si nos Dominus impiorum opera et ministerio, in physicis, dialecticis, mathematicis et reliquis id genus voluit adiutos, ea utamur: ne si Deidona ultro in ipsis oblata negligamus, demus iustas ignaviae nostrae poenas.”

37) *Institutio 1559*, II, ii, 18.

38) *Institutio 1559*, II, ii, 19.

39) *Institutio 1559*, II, ii, 18.

40) *Institutio 1559*, II, ii, 25.

41) *Institutio 1559*, II, ii, 18: “Ad hanc ergo veritatem nec appropinquat, nec contendit. nec collimat humana ratio, ut intelligat quis sit verus Deus, qualisve erga nos esse velit.”

42) *Institutio 1559*, II, ii, 20: “...sed nihil efficitur eius praedicatione, nisi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계속적인 인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즉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시지 않는 모든 곳은 암흑이다. 선택은 오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만, 선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는 의지의 자유와 관계가 없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 것도 없고(Nostrum nihil nisi peccatum) 하나님이 앞질러 모든 일을 하셨다(Praevenit te Deus in omnibus)고 고백하고 있다.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 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⁴³⁾는 사실을 칼빈은 유의시키고 있다.

2) 기독교론과 그 근거들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셨다.”⁴⁴⁾ 즉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받아 주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가졌다.”⁴⁵⁾ “처음에 선민을 택하신 것도 증보자의 은총에 의한 일이었다.”⁴⁶⁾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 되는 일은 우리가 만물 중에 무엇이 되기 전(antequam omnino aliquid essemus)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화해를 얻었다는 것은 마치 성자가 우리를 그와 화해시키심이 미워하신 자들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자로서 동시에 이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화해함을 받았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interior magister Spiritus viam ad animos patefaciat. Ergo non veniunt ad eum, nisi qui a Patre audierunt et edocti sunt. Quae ista discendi et audiendi ratio? Nempe ubi aures ad audiendum, et mentes ad intelligendum, Spiritus mira et singulari virtute format.”

43) *Institutio 1559*, II, ii, 26.

44) *Institutio 1559*, II, vi, 4.

45) *Institutio 1559*, II, xvi, 4: “Atque hac ratione dicit paulus, eam dilectionem, qua nos ante mundi creationem complexus est Deus, in Christo consitisse ac fuisse fundatam [Ephes. 1. a. 4].”

46) *Institutio 1559*, II, vi, 2.

는 우리를 미워하신 때에도 신비롭고 신적인 방법(miro et divino modo)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는 그가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 그의 역사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저질렀던 것을 미워하시는 동시에, 그가 만드신 것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⁴⁷⁾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는 칼빈에게 있어서 질료적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전에 유효적 원인으로서는 창조 전에 그리고 인간의 타락 전에,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긍휼에 종속적이고 그것 없이 이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로”⁴⁸⁾ 조차도 그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지 않고 제일원인(prima causa)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아가며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clarissimum lumen praedestinationis et gratiae)은 인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자신이요 중보자 자신이 현저한 예정의 예(illustrius praedestinationis exemplum)라고 하였던 것이다.⁴⁹⁾ “만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그 견고성이 있는 우리의 구원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자마자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⁵⁰⁾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해시키는 영원한 중보자(perpetuo mediator)이시기

47) *Institutio 1559*, II, xvi, 4: “Quod ergo reconciliati sumus per mortem Christi, non sic accipiatur quasi ideo nos reconciliaverit ei Filius, ut iam amare inciperet quod oderat: sed iam nos diligenti reconciliati sumus, cum quo propter peccatum inimicitias habebamus. Habebat itaque ille erga non charitatem, etiam quum inimicitias adversus eum exercentes operaremur iniquitatem. Proinde miro et divino modo et quando nos oderat, diligebat. Oderat enim nos, quales ipse non fecerat: et quia iniquitas nostra opus eius non omni ex parte consumpserat, noverat simul in unoquoque nostrum et odisse quod feceramus, et amare quod fecerat.”

48) *Institutio 1559*, II, xvii, 1: “...et simul interveniat Christi meritum, quod Dei misericordiae subiicitur. ...Nam Christus non nisi ex Dei beneplacito quicquam mereri potuit.”

49) *Institutio 1559*, II, xvii, 1.

50) *Institutio 1559*, II, xvi, 1: “Interea tamen mutila esset redemptio, nisi per continuos progressus ad ultimam usque salutis metam nos perduceret. Itaque simulac vel minimum ab eo deflectimus, sensim evanescit salus, quae solida in eo residet: ut se ultro privent omni gratia quicunque in eo non acquiescunt.”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perpetuo efficacia)을 나타낸다.⁵¹⁾

B.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한 정의

前章에서는 오늘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문제를 칼빈의 비판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칼빈에 의하면, 공로사상의 시발점을 의미하는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으며 구원의 서정도 택자들에게 제한되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악한 일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선을 향한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는데, 이 전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선의 시초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선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 또한 칼빈은 인간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신인협동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공로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선행의 공로를 성령께 돌리고 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사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협력한다는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고 롬바르두스를 지적하였다.

칼빈은 인간이 강제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자원해서 노예가 되었으며, 인간의 그 의지는 죄의 족쇄로 묶여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간에게 있는 자그마한 선의도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本章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원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인간의 타락·심판에 대한 인과론도 계속해서 논하게 된다.

51) *Institutio 1559*, III, xiv, 11.

1. 칼빈에 따른 구원과 관련된 원인들

칼빈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원인으로 4가지 원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거기서 그는 유효적 원인, 질료적 원인, 형식적 원인 및 목적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구원을 위한 유효적 원인(*efficientis causa*)은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우리에게 대한 자비로우신 사랑이며, 질료적 원인(*materialis causa*)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의 형식적 혹은 기구적 원인(*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은 믿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원인들이 동시에 언급된 구절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⁵²⁾이라고 한다. 즉 이 구절에서의 믿음은 형식적 혹은 기구적 원인을 가리킨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로 성경에는 그것의 목적인(*finalis causa*)이 신적 의의 증명과 선의 찬양이라고 증거되어있다는 것이다.

결국 칼빈이 이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다(*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더욱 더 놀랍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전체(*tota scriptura*)의 그런 증거는 유효적 원인과 목적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질료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마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들이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⁵³⁾라고 하였다.

요한복음 3:16절은 구원의 서정에서 인과론과 관련해서 원인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적인 원인, 또는 질료적 원인, 그리고 형식적인 원인, 기구적인 원인, 및 결과적 원인 등 이런 인과론에 있어서의 최소한 세 가지가 들어있는 본문으로 칼빈은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인과론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로마서 3장이든지 또한 에베소서에는 가장 사실적으로 그 인과론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52) *Institutio 1559*, III, xiv, 17: "Atque tres simul istas una sententia comprehendit Iohannes, quum dicit,"

53) *Institutio 1559*, III, xiv, 17: "Quum vide amus 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quid est quod iam operibus vel confidamus vel gloriemur? Nec de efficiente, nec de finali controversiam nobis movere possunt vel coniuratissimi divinae gratiae hostes, nisi totam scripturam abnegare velint. In materiali et formali fucum faciunt, quasi dimidiatum cam fide Christique iustitia locum opera nostra teneant."

요한복음 3:16절은 유효적 원인인 동력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강조되고 있고, 질료적 원인으로서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형식적 원인으로서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라고 해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에 관련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방식과 관련된 문맥인 것이다.⁵⁴⁾

로마서 3:23절부터 26절에서는 앞선 세 가지 원인들 이외에도 네 번째 원인인 목적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목적인에 대해서는, 사도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다고 증거하고, 같은 곳에서 다른 세 가지도 명백하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우리를 포용하신 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한다.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질료인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라고 한 말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이 나타나 있다. 끝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3:26)고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의는 화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한다.⁵⁵⁾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네 가지 원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즉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은혜 안에 받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보로 행하되 믿음으로 받아 신적 선의 영광이 완전하게 빛나도록 모든 것들을 행한다"⁵⁶⁾고 그 구절이 가르친다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요한 원인인 제일원인 혹은 보다 높은 원인

54)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21.

55) *Institutio 1559*, III, xiv, 17.

56) *Institutio 1559*, III, xiv, 17: "Sic et primo ad Ephesios capite docet nos recipi a Deo in gratiam ex mera misericordia: id fieri Christi intercessione: fide apprehendi: omnia in hunc finem, ut divinae bonitatis gloria ad plenum eluceat."

(superior causa)에 대한 상대어로서 종속적인 원인들인 보다 낮은 원인들이 그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칼빈의 경우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이며 주요한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들, 그리고 택자들과 유기자들도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아야 할 죄의 원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악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필연이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처음에 들으면 심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한 것들의 은밀한 제반원인들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고 그것들의 제원인을 창조한 것들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셨다”⁵⁷⁾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종속적인 여러 원인들이 그것들의 결과로 나오는 일이 가능케 하였으며,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닌 방법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반면 보다 높고 먼 제반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 속에 감추시고 그것으로부터 가능케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셨다”⁵⁸⁾고 하면서, “그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심으신 것보다 감추어진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진실한가 되묻고 있다. 칼빈은 그러므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들을 그의 의지대로 다스리셔서 모든 인간의 의논들과 행동을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고정된 목적으로 확고하게 결정하시기 때문”⁵⁹⁾이라고 하였다.

5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60: "Habet in se ipso Deus absconditas quorundam factorum causas, quas rebus conditis non inseruit"

58) Ibid., p.360: "Item quod subiicit explicandi gratia, quod sic causas inferiores condiderit Deus ut ex illis esse illud, cuius causae sunt, possit, sed non necesse sit: altiores autem et remotas sic in se absconderit, ut ex eis esse necesse sit, quod ex illis fecit, ut esse possit."

59) Ibid., p.360: "Quod enim verius, quam Deum in creaturis regendis plus aliquid apud se habere reconditum, quam earum naturis indiderit? Atqui, omnium quae geruntur, prima causa ideo censetur eius voluntas, quia naturas a se conditas arbitrio suo ita regit, ut cuncta hominum consillia et actionis in finem a se praefixum destinet."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팔이 외적인 행동들에 선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정들도 다스리시며, 행위의 경과에 앞서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원하시는 것 자체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성취하도록 하시지 않는다”⁶⁰⁾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에게 “기구라는 것은 모든 행동들의 원작자와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팔이 인도자로서 필연적으로 선행하는 것”⁶¹⁾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칼빈의 입장에 따라,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종속적인 원인들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유한 본성에 따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먼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로서의 필연성을, 종속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필연적이지 않은 피조물의 여러 가지 고유한 성질을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의지의 경우에는 의지로서의 본성에 고유한 자원적이고 임의적인 성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칼빈의 해석⁶²⁾

칼빈은 하나님의 비밀안에 있도록 한 것을 지나친 호기심(nimia curiositas)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것도 않되지만, 밝히 공개하신 것을 버리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예정론을 던져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그런 위협성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스스로 보지 못했다는 꼴이 되며, 예정교리를 시시하듯이 내리누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해가 무엇인지를 생각없이 저질러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비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0) Ibid., p.358: "Unde perspicuum fit, quod iam attigeram, non minus interiores affectus regere Dei manum, quam externis actionibus praeesse: nequa Deus, quae decrevit, hominum manu perficeret, nisi in ipsorum cordibus operaretur ipsum velle, quod operis effectum praecedit."

61) Ibid., p.288: "Organa ubi audimus, tum Deum praesidem actionis totius et autorem, tum manum eius deirctricem praecedere necesse est."

62) 이 부분의 주요 내용과 라틴어 원문은 김영규 교수의 책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네바 교회가 1551년 Hieronyme Bolsec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칼빈의 예정교리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나타났고, 칼빈이 Albertus Pighius Campensis에 대한 반박논문에서 그의 예정론에 대한 엄격한 입장이 잘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해서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그 복음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말살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⁶³⁾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제거하는 자들은 드높게 찬양하며 선포해야 할 이 일을 극도의 악의로 회미하게 만들며 겸손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일”⁶⁴⁾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⁶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예정에 관한 설교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반박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⁶⁶⁾ 따라서 어거스틴의 증거에 따라서 칼빈도 “예정에 대한 말씀선포로 말미암아 최후까지 인내하고 전진케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선포가 방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정론은 널리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예정도 전파되지 않으면 않된다”⁶⁷⁾고 하였다. 참으로 1551년의 예정론 논쟁 이전에 그의 기독교 강요 첫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칼빈의 선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런 요구와 일치한다고 본다.

존 낙스(John Knox)는 실천적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도록 예정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존 낙스가 예정론에 대해서 썼을 때 인간의 구원이 어

63)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54.

64) *Institutio 1559*, III, xxi, 1: “...maligne quantum in se est obscurant quod magnifice ac plenius buccis celebrandum erat, et ipsam humilitatis radicem evellunt.”

65) *Institutio 1559*, III, xxi, 1.

66) *Institutio 1559*, III, xxi, 4;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25.

6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p.325-326: “Nec praedestinationis igitur praedicatione impedienda est praedicatio fidei perseverantis et proficientis: ut quod oportet audiant, et quibus datum est obediant. Quomodo enim audient, absque praedicante? Nec rursus praedicatione fidei proficientis, et in finem usque perseverantis, impedienda est praedicatio praedestinationis: ut uti fideliter et obedienter vivit, non de ipsa obedientia tanquam de suo, sed in Domino gloriatur.”

떻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지에 대한 그것의 명확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명확한 성격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의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인한 예정론 안에 인간의 타락 자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당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글을 씀으로 John Knox 자신이 이미 그 당시 시대적 제네바 상황에서 칼빈의 대적자들을 그의 대적자로서 서서 싸우고 확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빈이 왜 그토록 강하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의 삶의 내용으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존 낙스가 칼빈의 대적자들인 Sebastian Castalio, Pighius, Sadoletus, Georgius Siculus 등을 다시 들먹였을 때, 그들 뒤에 처음부터 계속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임을 그 글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존 낙스에 따르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첫 해독을 끼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에 의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선포하시는 곳에서 생명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처음부터 계속 이와 같은 일을 사탄이 여러 가지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논쟁과 관련해서 존 낙스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사탄이 처음부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과 값없는 사랑에 대적자임을 선포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정론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의 영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필연적이어서 그것 없이는 신앙은 참되게 가르쳐질 수 없고 확실하게 정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그것 없이는 결코 참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지식(true humility and knowledge of himself)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저울질하시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의 기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의심함이 없이 믿을 때보다 적절하게 믿음을 세우고 존립시킬만한 더 이상의 길이 없다. 세상의 휘몰아치는 폭풍들과 사탄의 공격들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변화무쌍함과 연약함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함 속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것의 원인을 하나님의 품과 의논 속에서 발견할 때만 우리의 구원은 보증이 있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은 사탄도 전복할 수 없고 지옥의 문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피난성(a towre of refuge)이라고 한 것이다. 그 대신 인간론과 같은 그렇게 약한 근거 위에 기초한 모든 위로를 사탄은 쉽게 타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유익 이외에도 예정론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감사하게 한다고 하였고, 또한 그 교리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조심히 순종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존 나스는 칼빈과 함께 구원의 확고한 근거들을 약하게 하는 모든 이단들의 획책들의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논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과 죄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났던 길과 수단이었으며, 그것이 파괴되었던 원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모든 은총이 선택으로 흘러내려움을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아담과 다윗을 한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아담과 다윗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어, 그들이 비록 가장 무섭게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며 친절하게 그와 대화하시고 오랫동안 그의 과오에 대해서 확신케 하여 그에게 화해의 가장 기쁜 약속을 맹세하실 만큼 그렇게 그들이 머리가 되신 같은 주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입었다. 같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다른 사람을 비유로 하여 그의 죄의 전율을 느끼도록 하셨으며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게 하고 양심을 때리며 그 후에 가장 부드럽게 절망의 늪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모든 은총들은 이런 저런 사람을 향하여 시종일괄적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들 안에서 사랑을 입거나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부의 뜻에 어긋나게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시면서 그들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담과 다윗을 미워하신 것은 그들 자신들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고 공의롭게 그 형벌을 징벌하신다고 하였다.⁶⁸⁾

68)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p.16-17.; John Knox, *An Answer to a Great Number of Blssphemous cauillations written*

“선택을 예지로부터 연역하거나⁶⁹⁾ 예지가 선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정론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칼빈은 그 둘(예정과 예지)을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⁷⁰⁾ 예지를 원인으로 삼는자들은 거기에 공로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하나님은 그 공로를 미리 보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다. 그의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자녀의 자리에 입적시킨다고 한다든지, 악과 불신앙으로 기울어질 그들의 성향 때문에 불쾌히 여기시는 자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하였다는 논리이다.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예정으로 돌리지만,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예지하였다는 식으로 예정론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을 지금 칼빈이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들(신자들이 택함으로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과 행위 때문에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 선행될 공로들과 앞으로 있을 공로들)⁷¹⁾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by an Anabaptist, and adversarie to Gods eternal Predestination, The Works of John Knox, ed. by David Laing, Vol. 5, Edinburgh 1856(약자: On Predestination), p.24, preface: "The cause of these my former wordes is, that as Satan ever frome the beginning hath declared himself ennemie to the free grace and underserved love of God, as hath he now in these last and moste corrupted daies most furiously raged against that doctrine, which attributeth all praise and glorie of oure redemption to the eternal love and underserved grace of God alone. By what meanes Sathan first drew mankynd frome the obedience of God, the Scripture doeth witness: To wit, by powring into their hartes that poison, that God did not love them; and by affirming, that by transgression of God's commandment they might attein to felicitie and joy; so that he caused them to seke life where God had pronounced death to be. This same practise hath Sathan ever frome the beginning used, to infect the Church with all kind of heresie; But alas! to such blasphemie did never the Devil draw mankynd as now of late daies, ……"

69) *Institutio 1559*, III, xxii, 2: "errorem aperte rufutat qui electionem ex praescientia deducit."

70) *Institutio 1559*, III, xxii, 5: "sed eam multis cavillis involvunt, praesertim vero dui praescientiam faciunt eius causam. Ac nos quidem utranque in Deo statuimus: sed praepostere dicimus alteram alteri subiici"; *Institutio 1559*, III, xxii, 1: "Sic interposito praescientiae velo electionem non modo obscurant, sed originem aliunde habere fingunt."

71) *Institutio 1559*, III, xxii, 3: "Pugnant enim inter se haec duo, habere pios

칼빈은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서, 그의 타락전 선택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의 신학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⁷²⁾ 칼빈의 경우 타락전과 타락 후에와 같은 예정의 시기에 대해서 주된 관심은 아니었다.

다만 피기우스와 같은 무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였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동시에 택자들과 유기자들 사이의 구별이 있었다는 고백이 필연적이다는 그런 비판론에서 처음 타락전 선택설에 대한 논의가 나왔음을 칼빈이 언급하고 있다.⁷³⁾

또한 유기자들이 아담 안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정죄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전에(ante lapsum Adae) 멸망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고 비난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 이전에 그와 그의

ab electione ut sancti sint, et ad eam ratione operum pervenire. Neque valet hic cavillum quo subinde confugiunt, nullis praecedentibus meritis Dominum rependere electionis gratiam, futuris tamen concedere.”

72) 도르트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타락후 선택설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간적 입장이 강했다. 레이든 학파의 대표적 학자들(Polyander, Walaeus, Thysius, Lubbertus)은 타락후 선택설 입장이었다. 이런 타락후 선택설의 입장으로 몰아가게 한 주 인물이 Molinaeus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타락전 선택설에 대해서 도르트회의가 부정적으로 결정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화란 땅에서는 교회가 갈라져 있을 정도로 미묘한 문제이다. 도르트회의 결정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곤비한 자들, 즉 처음 정직하였으나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와 부패안에 있는 온 인류로부터 택하였다.’라고 하여 ‘대상’을 타락한 자로 하여 타락후 선택으로 하고 있다. 또한 헤센의 신학자들도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그 수가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확실히 정한 사람들을 그의 뜻의 자비로 우선 성향에 따라...’라고 함으로써 타락후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김영규 교수는 칼빈의 타락전 선택설의 입장을 따라, ‘신론측면에서 성경의 주체로 보면 타락전 선택설이 더욱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롬9:11절을 인용하여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에서 야곱을 넘어 아담의 창조 전에까지 적용하며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하고 있다.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pp.108-110 및 p.129와 p.15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73)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96: “...simul necesse erit fateri diseretionem inter electos ac reprobos priorem fuisse hominis lapsu, in mente divina”; ibid, p.313: “Respondeo, tria hic esse consideranda: primo aeternam Dei praedestinationem, qua de toto genere humano, et de singulis hominibus quid futurum esset statuit, antequam cecidisset Adam, fixam et decretam fuisse.”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스스로 작정하였던 대로, 그렇게 유기자들의 멸망이 죄로 전가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가 그 원인보다 앞서게 하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담의 타락에 선행하였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확고함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인류의 보편적 파멸 이후에 아담의 인격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정하실 것을 예지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또한 피기우스가 비난하였다”⁷⁵⁾고 칼빈이 언급하고 있다. 즉 칼빈에 의하면, 피기우스로부터 처음 타락전예정설과 타락후예정에 대한 예지설이 비난의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기우스가 타락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이었다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가깝고 먼 원인들(*causas propinquas et remotas*)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피기우스가 혼돈하고 있다면,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⁷⁶⁾고 대답했다.

어거스틴의 근거에 따라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 상호 조화하는 그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대칭성을(*optimam et aptissimam symmetriam*) 피기우스는 논의하지 않았다”⁷⁷⁾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장 가까운 원인이 자신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파멸의 죄책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를 찾지 못하는 것”⁷⁸⁾ 이라고 하였다.

물론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에 따라 “하나님은 창조한 것들의 은밀한 제반원인들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고 그것들의 제 원인을 창조한 것들 가운데 새겨두지 않으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낮은 여러 원인들이 그것들의 결과로 나오는 일이 가능케 하였으되, 결코 필연적인 것

74) Ibid., p.297.

75) Ibid., p.297: “Augustinum ridet, eiusque simile, hoc est pios omnes, qui Deum imaginantur. postquam universalem generis humani ruinam in persona Adae praesciverat, alios ad vitam. alios ad interitum destinasse.”

76) Ibid., p.296.

77) Ibid., p.297.

78) Ibid., p.296: “Postquam huc illuc circumspexerint homines, quo tamen interitus sui culpam transferant, non inveniunt: quia proxima in ipsis causa residet.”

이 아닌 방법으로 나오도록 하셨고 반면 보다 높고 먼 제반원인은 하나님 이 자신 속에 감추시고 그것으로부터 가능케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도록 하셨다”⁷⁹⁾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그는 크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절도있게 생각해야 할 그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감춰어진 뜻을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찬양하지 않겠느냐”⁸⁰⁾고 반문하고 있다.

즉 “거기에는 피기우스가 비난하는 그 모순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 명제들은 진실한 것”⁸¹⁾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초에 사람의 상태가 그 때까지 순수하게 남아 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창조전 작정론과 지금 과 멸된 다수로부터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선택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⁸²⁾

물론 타락전 선택설은 로마서 9장 10-13절에 근거한다. 즉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이 확고히 서도록,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된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 바울의 선포내용을 야곱을 넘어 아담에게 적용하면, 대상에 대한 영원한 선택도 타락전 선택이었다는 논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어거스틴 이래 전통적으로 콜루투스이단들(Colthiani)과 관련해서 이사야 45장 7절(Ego Deus creans mala,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에 근거하여 해결하였다.⁸³⁾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의 서정의 성취는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79) Ibid., p.296: “Item quod subiicit explicandi gratia, quod sic causas inferiores condiderit Deus ut ex illis esse illud, cuius causae sunt, possit, sed non necesse sit: altiores autem et remotas sic in se absconderit, ut ex eis esse necesse sit, quod ex illis fecit, ut esse possit.”

80) Ibid., p.297: “quin arcanum Dei consilium, quo praeordinatus fuerat hominis lapsus, qua decet sobrietate, procul adoret fides nostra ….”

81) Ibid., p.297: “Ego autem utrumque istorum, quae oppugnat Pighius, verum esse affirmo”; Ibid., p.298: “et tamen fatemur, quidquid Adae accidit, divinitus fuisse ordinatum.”

82) Ibid., p.297.

83)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13.

의미한다. 그래서 “택자들을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 대한 그의 소명의 유효성에 의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⁸⁴⁾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다. 역시 칼빈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전체 중 어느 것도 완성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택들은 이미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⁸⁵⁾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성취와 유효를 구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⁸⁶⁾

3. 인간의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건일반에 있어서의 인과론

- 1)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칼빈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원하시면서(volens) 인간이 넘어지는 것 자체를 겪게 하였고, 저 죄는 항상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⁸⁷⁾고 하였다. 즉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악행들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을지라도 의로운 원인으로부터 주님께 의해 나오고(procedant), 비록 만사의 제일원인이 그의 의지일지라도, 그가 범죄들의 원작자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⁸⁸⁾

이런 입장에 따라 칼빈은 “죄책의 악(malum culpa)이 아니라, 형벌의

84) *Institutio 1539*, p.261: "Quemadmodum suae erga electos vocationis efficacia, salutem, ad quam eos aeterno consilio destinarat, perficit Deus: ita sua habet adversus reprobos iudicia, quibus consilium de illis suum exequatur."

85) *Institutio 1559*, II, ix, 3: "Admonui quidem nuper, Christum nihil reliquum fecisse ex tota salutis nostrae summa: sed ex eo perperam infertur, beneficiis ab ipso partis nos iam potiri."

86)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15.

8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15: "Quod autem Deus sciens ac volens hominem ipsum cadere passus est: Hoc quidem absque controversia tenendum : semper illi peccatum odio fuisse."

88) *Ibid.*, p.363: "Ergo quum iusta de causa, licet nobis ignota, a Domino procedant quae scelerate ab hominibus maleficia perpetrantur, etiamsi rerum omnium prima causa sit eius voluntas, peccati tamen eum esse autorem nego."

악(malum poenae)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다(proficisci)⁸⁹⁾고 기묘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사의 원작자로서 자신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조성하신다고 증거되고 있고(사45:7),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어떤 악도 생기지 않는다(암3:6)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신의 심판들을 집행하시면서 원하시면서 하시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시는가”⁹⁰⁾를 칼빈은 반문하고 있다.

악과 관련해서 개혁주의자들은 그 작정하는 의지를 둘로 즉 유효케하는 의지(voluntas efficiens)와 허용하는 의지(voluntas permittens)로 나누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적 의지의 적극적인 행위를 표현하였으나, 칼빈이 어거스틴에 따라 ‘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였던 것과 약간의 다른 성격을 보게된다. 바빙크의 역사적 이해처럼 쾰링글리의 이해도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허용적 의지아래 “순수한 부정도 아니요, 무지, 무능, 소홀로 인한 의지의 단순한 주저함(mera cessatio voluntatis)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유효한 결의(volitio efficax)이되, 효력있는 것(efficiens)이거나 산출하는 것(producing)이 아니라, 도덕적 본성에 따라 죄를 따라야 하는 결손적인 것(deficiens)”⁹¹⁾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그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칼빈은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을 구별하는 원인들의 다양성(causarum diversitas)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사탄과 인간을 통해서 행하고(agens) 계시면서, 어떻게 저들의 범죄로부터 전혀 오염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죄책을 면할 수 있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ministros)을 의롭게 정죄하실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행하는 것(agere)과 허용하는 것(Permittere) 사이에 구별이 생겼다”⁹²⁾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허망한 구별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선동하시어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고(삼하24:1), 다른 곳에서는 사탄을 같은

89) Ibid., p.361: “malum poenae, non culpae a Deo proficisci, modo dextre intelligatur.”

90) *Institutio 1559* I, xviii, 3: “Testatur se creare lucem et tenebras, formare bonum et malum(Ies. 45, 7); nihil mali accidere quod ipse non fecerit(Amos 3, 6). Dicant obsecro, volensne an nolens iudicia sua exerceat?”

91)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20.

92) *Institutio 1559*, I, xviii, 1.

일의 선동의 원작자로 만든다(대상21:1)고 하였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디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세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채⁹³⁾라고 하였다.

특히 “유기자들은 사탄의 기구들⁹⁴⁾인데, 이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악한 욕망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효력적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⁹⁵⁾”이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탄의 중재활동을 통해서 유기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추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한에서 자기 몫을 스스로 행하고 성취하는 것⁹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광폭하게 거칠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의 완고한 악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완고함 그 자체에 몰아 세우지 않는 것처럼 강박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⁹⁷⁾”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사울은 자신의 범죄에 의해 행해져서 심중

93)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58: “Modum quoque exprimit scriptura, quum uno in loco recitat Deum populo iratum cor Davidis incitasse, ut populum numeraret(2 Sam. 24, 1): in altero Satanam facit eiusdem instigationis autorem(1 Chrom. 21, 1). unde intelligimus, Satanam irae Dei flabellum esse, ut corda hominum quocunque voluerit Deus impellat.”; *Institutio 1559*, I, xiv, 18: “Scimus enim iusta Dei vindicta satanae permissum fuisse ad tempus Davidem ut eius impulsu populum numeraret(2 Sam. 24, 1).”

94)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62: “Quomodo nunc a culpa eximetur Deus, cuius Satan cum suis organis reus erit?”; *Institutio 1559*, I, xvi, 14: “Quemadmodum enim ecclesia et snactorum societas Christum habet caput, ita impiorum fatio, et ipsa impietas cum suo principe nobis depingitur, qui summum imperium illic obtineat.”; *Institutio 1559*, I, xvi, 18: “Et merito; sunt enim impii omnes vasa irae. Ideo cui potius quam divinae ultionis ministro subiicerentur?”

9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58: “Nec vero ideo tantum irae Dei minister, quod animos ad malas cupiditates sollicitet: sed quia efficaciter trahat.”

96) *Institutio 1559*, I, xviii, 2: “Fateor quidem interposita satanae opera saepe Deum agere in reprobis; sed ut eius impulsu satan ipse suas partes agat et proficiat quatenus datum est.”

9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p.357-358:

에 품어진 광기를 자발적인 충동으로부터 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닦아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가하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원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⁹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간들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행한 악들인 한,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단순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행하고 계시는 원작자로부터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심판자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사역자들에 의한 수행을 명령(mandare)도 아니하고, 다만 허용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⁹⁹⁾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악이 명령된 의지에 상반되게(*contra voluntatem mandantem*) 일어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유효적 의지나 유효적으로 허용된 의지에 상반되게(*praeter voluntatem efficientem, efficaciter permittentem*)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강제적 필연성(*necessitate coactionis*)이 아니라 가정적, 결과적 필연성(*necessitate hypothetica, consequentiae*)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¹⁰⁰⁾고 헤페는 말한다.

또한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한가한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그의 능동적인 허용(*permissio*)과 결정(*ordinatio*)을 통하여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즉 하나님이 물론 아담으로 하여금 범 죄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죄와 투쟁하는 그에게서 은혜의 상태를 철회한 것도 아니며, 실제적인 타락이 일어나도록 아담과 약간이나마 협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다음과 같이 작용하였다. 그는 보편적으로 모든 다른 인간 행위와 피조물의 모든 외적인 생명적 충동을 촉진하는 방식에 따라, 아담이 범죄하는 행동의 외적이며 물리

“quando neque extrinseco motu impelli fingimus hominum animos, ut violenter ferantur, neque in Deum transferimus indurationis causam, ac si non sponte propriaque malitia duri et immites, se ipsos ad perveraciam acuerent: sed quod perverse homines faciunt, non nisi Deo ordinante fieri, scriptura docet.”

98) Ibid., p.358: “Scelere quidem suo agitur Saulus, ut furorem intus conceptum voluntario motu egerat. Eum nihilominus impellit Satan: neque id Deo per otium speculante, sed ita volentis.”

99) *Institutio 1559*, I, xviii, 1: “quia ridiculum esset, iudicem tantum permittere, non etiam discernere quid fieri velit, et mandare exsequutionem ministris.”

100) 하인리히 헤페, 「개혁과 정통교의학」, 이정석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21.

적인 기본구조에 작용하였다. 그는 마귀가 (유혹자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였으며, 그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인간에게 그 유혹을 잘 치러내도록 허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타락이 오히려 인류 일부에게 그 자신의 신성과 상향된 위상과 축복을 보다 완전하게 나타내는 방편이 되도록 조정하였다.”¹⁰¹⁾

2) 어떻게 한가지 사건에 대해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하는가에 대해

칼빈은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지움이 없이 어떻게(quo modo) 같은 일(idem opus & idem facinus)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각각 원작자로 돌릴 수 있는가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옉의 예를 들어 행하는 목적(finis)과 방식(modus)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즉, 주님의 뜻(Domini consilium)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는 것이었고, 사탄은 그를 절망으로 몰라 넣으려고 전력을 다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칼빈은 의도들(consiliis)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부터 이미 행동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식도 못지않게 다른데, 주께서는 자기의 종이 사탄에 의해 괴로움을 받고 있을 것을 허락하시며, 갈대아 사람들을 사역자들로 채용하여 그들을 사탄에 의해서 추진되어지고 있도록 넘겨주었으며, 사탄은 독을 묻힌 그의 창들로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그 악행이 수행되어지고 있도록 자극하였으며, 그들은 격렬하게 불의에로 돌진하여 온 지체를 죄로 물들이며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탄은 유기자들 속에서 악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시는데, 그의 진노의 기구인 사탄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의로운 심판들이 수행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이리저리 친히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²⁾

이런 차원에서 칼빈은 “실로 그 목적과 방법에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이 시련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셨고 사탄과 사악한 강도들은 다

101) Ibid., p.450.

102) *Institutio 1559*, II, iv, 2.

만 이 시련의 사역자들이었다”¹⁰³⁾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적과 방법의 차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게 하며, 사탄과 사람의 추함은 그 사악함을 폭로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탱되어지고 움직여지는 효력을 얻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활동은 생략하고, 하나 하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저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한다¹⁰⁴⁾고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터놓고 모호하지 않게 가르쳐지는 것들 뿐”¹⁰⁵⁾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을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까다로움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고, 게다가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알고 있음으로써 유의한 것이 아니라고 아셨다면, 자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절대로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 공표된다고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실로 예외 없이 성경들 안에서 가르쳐진 것이 무엇이든지(*quidem sine exceptione, quidquid in scripturis traditum est*) 배우려는 온순함으로 꾀안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¹⁰⁶⁾고 강조하였다.¹⁰⁷⁾

C. 아담의 자유의지와 책임

前章에서는 구원과 관련한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이며 주요한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택자들과 유기자들도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 받아야 할 죄의 원인은 영

103) *Institutio 1559*, I, xviii, 1: "diverso quidem id modo et fine, sed tamen ne quid aggredi possit, nisi volente Deo. ...colligimus, eius probationis cuius satan et scelesti latrones ministri fuerunt, Deum fuisse autorem."

104) *Institutio 1559*, II, iv, 2.

105) *Institutio 1559*, I, xviii, 3: "Quando autem hactenus recitavi solum quae aperte et non ambigue in scriptura traduntur,..."

106) *Institutio 1559*, I, xviii, 4.

107)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김영규 교수의 책 「조직신학편람 I」 및 안성균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하여」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악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칼빈의 입장에 따라,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종속적인 원인들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유한 본성에 따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먼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로서의 필연성을, 종속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필연적이지 않은 피조물의 여러 가지 고유한 성질을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피기우스로부터 처음 타락전 예정설과 타락후 예정에 대한 예지설이 비난의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기우스가 타락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이었다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가까웁고 먼 원인들(*causas propinquas et reomtas*)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 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피기우스가 혼돈하고 있다면,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악행들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을지라도 의로운 원인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나오고(*procedant*), 비록 만사의 제일원인이 하나님의 의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범죄들의 원작자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지움이 없이 어떻게 같은 일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각각 원작자로 돌릴 수 있는가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욱의 예를 들어 행하는 목적(*finis*)과 방식(*modus*)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1. 타락전 아담에게 있었던 의지의 자유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¹⁰⁸⁾고 하였다.

칼빈은 인간의 최초의 상태에 대해 계속하여 말하기를, “인간은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 사려분별, 판단은 지상 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108) *Institutio 1559*, I, xv, 8: “Ergo animam hominis Deus mente instruxit, qua bonum a male, iustum ab iniusto discerneret, ac luce videret.”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정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다”¹⁰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온전한 상태에서, 칼빈은 “최초의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quando non nisi propria voluntate cecidit*).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자신의 축복들을 부패시키기 전까지 그의 정신과 의지는 최고로 끈았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다”¹¹⁰⁾고 함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¹¹¹⁾의 힘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한편, 칼빈은 범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본선을 주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매우 악하다고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의지를 따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하신 대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¹¹²⁾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왜 하나님께서 인내의 능력으로 아담을 붙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의논(*consilio*) 속에 감춰져 있다. 아담이 원하기만 했더라면 실로 받을 수 있었지만, 받을 수 있었던 원함을 소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원함은 인내를 뒤따르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멸망을 초래할 만큼 그가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평

109) *Institutio 1559*, I, xv, 8.

110) *Loc. cit.*

1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아담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본성상 자유하다. 따라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억지로 선을 결정하거나 억지로 악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연의 필연성이 아무리 강해도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마17:12; 약1:14; 신30:19; 요5:40).” - A.A.하지,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209.

112) *Institutio 1559*, I, xv, 8.

범하고 게다가 실패할(etiam e aducam) 의지를 주고 계셔서 저 타락으로 부터 자신의 영광을 이끌어낼 기회가 부과되어져야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¹¹³⁾고 칼빈은 강조한다.

칼빈은 혹 사탄의 선동(diaboli instigatione)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아내의 유혹들에 의해 속게 되었다고 아담이 핑계하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내부에 불신이라는 치명적 병독과 야심이라는 사악한 조연자와 교만이라는 악마적 부채가 발견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악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연으로부터 파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더욱 조금도 핑계할 수 없을 것”¹¹⁴⁾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르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권이며 힘으로 받은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여 자신은 물론 모든 인류에 과멸이 초래되도록 하였다”¹¹⁵⁾고 칼빈은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인간은 무죄했던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의지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었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가능성도 소유했었으므로 그는 타락하고 말았다(창2:16, 17; 3:6). 그러나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그 어떤 영적 복에 대한 그 어떤 의지능력도 상실하고 말았다(롬 5:6; 8:7; 요15:5). 따라서 인간은 자연인이 되었으므로 저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을 돌려댔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능력으로는 결코 선으로 돌아설 수 없게 되었고, 이 선을 위하여 그 어떤 준

113) *Instituto 1559*, I, xv, 8: "Cur autem perseverantiae virtute eum non sustinuerit, in eius consilio latet; ...Acceperat quidem posse, si vellet, sed non habuit velle quo posset; quia hoc velle sequuta esset perseverantia. Excusabilis tamen non est, qui tantum accepit, ut sibi sponte accerseret interitum. nulla vero imposita fuit Deo necessitas quin mediam illi voluntatem daret, atque etiam caducam, ut ex illius lapsu gloriae suae materiam eliceret."

114)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341: "Causetur Adam, ut volet, se datae sibi a Deo uxoris illecebris fuisse deceptum: intus tamen mortiferum infidelitatis virus, intus pessima consultrix ambitio, intus diabolicum audaciae flabellum reperietur. Multo igitur minus excusabiles erunt, qui ex profundis Dei adytis malorum suorum causam, quae se ex vitioso eorum corde profert, eruere tentabunt."

115) *Institutio 1559*, I, xv, 8.

비작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롬3:10, 12; 엡2:1, 5; 골2:13; 요6:44, 65; 고전 2:14; 딤후3:3-5; 엡2:2-5).”¹¹⁶⁾

2.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상태

1) 사람의 자기 인식

칼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로 창조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선천적인 우수성이 원상을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위대했을까를 아는 동시에, 우리에게 는 우리 자신의 것이 조금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인 하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일을 알때에 우리의 모든 자량과 자신이 사라지게되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고 수치심으로 위축될 것이다.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창1:27) 우리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고귀성이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으로 인하여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해력을 천품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정된 목표인 복된 영생을 향하여 매진해야 한다”¹¹⁷⁾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이신 하나님께 대해 진정한 겸손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¹¹⁸⁾이라 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판단을 표준으로 하여 자기를 세밀히 검토하는 사람은 결코 용기와 자신을 품을 이유를 찾아 낼 수가 없으며, 자기 성찰이 깊어

116) A.A.하지,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2항-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p.212.

117) *Institutio 1559*, II, i, 1.

118) Loc. cit.

갈수록 더욱 낙심하며, 드디어는 일체의 자신을 빼앗기고 인생을 바르게 지도해 줄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의와 선의 추구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우리의 시초의 고귀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의 처음 상태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을 명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의 교만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른 자아의식은 참된 겸손을 갖게 함을 말하고 있다.¹¹⁹⁾

칼빈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자기가 창조되며 귀한 천품을 받은 것은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내세 생명에 대하여 명상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자기의 재능을, 아니 재능의 결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결핍을 알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극도의 정신적 혼란으로 땅에 엎드릴 것이며, 이른바 무의 상태로 될 것이다. 첫째 점을 고려하면 자기의 의무의 성격을 인식하게 되며, 둘째 점에서는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알게 된다”¹²⁰⁾고 하였다.

2) 아담이 타락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

칼빈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주신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부른 아담의 이탈에는 어떤 종류의 죄가 있었는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아담의 죄를 탐욕에 의한 무절제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유치하

119) *Institutio 1559*, II, i, 3.

120) *Institutio 1559*, II, i, 3: "quam homo sui notitiam habere debet. ita partiamur, ut primo loco, quem in finem creatus sit, et donis non contemnendis praeditus reputet; qua cogitatione ad divini cultus vitaeque futurae meditationem excitetur; doinde suas facultates, vel certe facultatum inopiam expendat; qua perspecta, non secus atque in nihilum redactus, in extrema confusione iaceat. Huc tendit prior consideratio, ut quale sit officium suum agnoscat; altera, quid ad ipsum praestandum valeat."

다고 비난하면서,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무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그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며 악한 정욕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약속과, 그와는 반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죽음이 있으리라고 한 무서운 경고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을 진술하였다고 하였다.¹²¹⁾

“참으로 아담의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이 야심으로 자기의 마땅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시초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¹²²⁾이라고 칼빈은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아담의 교만한 행동이 있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에 대해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한 유혹의 성격에서 보다 완전한 정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확한 생각이 있었기에 여자는 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러므로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바울도 이점을 확인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롬5:19).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충이 타락의 근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야심과 교만이 생겨났으니,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으로 인하여 야심이 생겼으며 야심은 참으로 완강한 불순종의 모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버린 사람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뛰어 들었다.

121) *Institutio 1559*, II, i, 4.

122) *Institutio 1559*, II, i, 4: "Hinc elicere non difficile est, quibus modis in se provocaverit Adam iram Dei. Non male quidem Augustinus, dum superbiam dicit malorum omnium fuisse initium; quia nisi hominem altius quam licebat et quam fas erat extulisset ambitio, manere poterat in suo gradu"

그러므로 칼빈은 그때에 사탄에게 귀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참조, 렘9:21), 오늘날 우리가 같은 창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에 우리 앞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베르나르두스의 가르침은 옳다고 하였다.¹²³⁾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도 결코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모든 정욕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굴레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생각과 행복한 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곧 그러한 굴레가 된다. 그러므로 아담은 악마의 모독적 언사에 휩쓸려 한껏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소멸시킨 것”¹²⁴⁾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면서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은 하나님께 대해 엄청난 배신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원죄와 인간의 부패한 본성

1) 원죄의 정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어떠한 죄였는가에 대해, 칼빈은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에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 넣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¹²⁵⁾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23) *Institutio 1559*, II, i, 4.

124) *Institutio 1559*, II, i, 4: "Nunquam enim repugnare Dei imperio ausus fuisset Adam nisi eius verbo incredulus. Optimum scilicet hoc erat fraenum ad omnes affectus rite temperandos, nihil melius esse quam Dei mandatis parando colere iustitiam; deinde ultimam felicitis vitae metam esse ab ipso diligi. Diaboli ergo blasphemiis abreptus, quantum in se erat, exinanivit totam Dei gloriam."

125) *Institutio 1559*, II, i, 5: "Sicut spiritualis Adae vita erat, manere opifici suo coniunctum et devinctum, ita alienatio ab eo fuit animae interitus. Nec mirum, si genus suum pessumdedit sua defectione qui totum naturae ordinem pervertit in coelo et in terra."

아담의 죄는 인류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된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롬8:22)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는데(롬8:20)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해 있는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⁶⁾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형상이 그에게서 말소된 후에 이 벌-즉, 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장식했던 지혜와 힘과 성결과 진실과 공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무지와 무력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 등의 가장 추악한 병들이 생겨난 벌-을 받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모든 후손까지도 같은 불행에 잠기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¹²⁷⁾라고 불렀다. 여기서의 ‘죄’라는 말은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 버렸다는 뜻으로 표현되었다.”¹²⁸⁾고 했다.

“다윗이 고백한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시51:5)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 부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칭송하기 위해서, 자기는 잉태된 때부터 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는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한 것”¹²⁹⁾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더

126) *Institutio 1559*, II, i, 5.

127) 부카누스는 말하기를, “원죄는 단지 원초적 의로움의 결여가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확산되었고, 아담에 의하여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수된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죄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을 받을 책임이 있는 죄책의 상태이다.”라고 했다. - 하인리히 헤페, 「개혁과 정통교의학」, p.482.

128) *Institutio 1559*, II, i, 5: “Postquam ergo in eo oblitterata fuit coelestis imago, non solus sustinuit hanc poenam, ut in locum sapientiae, virtutis, sanctitatis, veritatis, iustitiae, quibus ornamentis vestitus fuerat, teterrimae cederent pestes, caecitas, impotentia, impuritas, vanitas, iniustitia; sed iisdem quoque miseriis implicuit suam progeniem ac immersit. Haec est haereditaria corruptio, quam peccatum originale veteres nuncuparunt, peccati voce intelligentes naturae antea bonae puraeque depravationem.”

129) *Institutio 1559*, II, i, 5.

러웠고 오점이 많았는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14:4)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¹³⁰⁾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라고 말한 것도(엡2:3), 모든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이 ‘본질’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에게서 부패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죽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를 부패시키고, 그것이 모든 후손에게까지 감염되고 만연된 것이다. 우리의 하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3:6),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모두 그 앞에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신다(요3:5).”¹³¹⁾

그러므로 칼빈은 원죄의 정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첫째로,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는 부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벌이 우리에게 왔으며, 또한 그가 전염시킨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¹³²⁾라고 하였

130) *Institutio 1559*, II, i, 5.

131) *Institutio 1559*, II, i, 6: "Nec vero aliter staret illud Pauli (Eph. 2, 3), natura omnes esse irae filios, nisi iam in ipso utero maledicti essent. Naturam vero illic notari, non qualis a Deo condita est, sed ut in Adam vitiatam fuit, facile colligitur: quia minime consentaneum esset, Deum fieri mortis autorem. Sic ergo se corrumpit Adam, ut ab eo transierit in totam sobolem contagio. Satis etiam clare pronuntiat coelestis ipse iudex Christus, omnes pravos et vitiosos nasci, ubi docet (Ioann. 3, 6), quidquid genitum est ex carne, carnem esse, ideoque omnibus clausam esse vitae ianuam, donec regenerati fuerint."

132) *Institutio 1559*, II, i, 8: "Quae vero inde emergunt opera qualia sunt adulteria, scortationes, furta, odia, caedes, comessationes, fructus peccati secundum hanc rationem vocat; quanquam et peccata, cum in scripturis passim, tum etiam ab ipso nuncupantur. Haec itaque duo distincte

다. “둘째,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육의 일을 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fornax)에서 불꽃과 불뚝이 튀어나오며(flammam et scintillas efflat)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다.”¹³³⁾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차 있다고 하는 것,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적으로 인간은 육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칼빈은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지까지도 온통 죄로 더럽혀져서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부패에 대해 말한다.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 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으로 향하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롬8:7), 따라서 ‘사망인 것이다’(롬8:6)”¹³⁴⁾라고 하였다.

observanda: nempe, quod sic omnibus naturae nostrae partibus vitiati perversique, iam ob talem duntaxat corruptionem damnati merito convictique coram Deo tenemur, cui nihil est acceptum nisi iustitia, innocentia, puritas. Neque ista est alieni delicti obligatio. Quod enim dicitur, nos per Adae peccatum obnoxios esse factos Dei iudicio, non ita est accipiendum ac si insontes ipsi et immerentes culpam delicti eius sustineremus; sed quia per eius transgressionem maledictione induti sumus omnes, dicitur ille nos obstrinxisse. Ab illo tamen non sola in nos poena grassata est, sed instillata ab ipso lues in nobis residet, cui iure poena debetur.”

133) *Institutio 1559*, II, i, 8: Alterum deinde accedit, quod haec perversitas nunquam in nobis cessat, sed novos assidue fructus parit: ea scilicet, quae ante descripsimus, opera carnis; non secus atque incensa fornax flammam et scintillas efflat, aut scaturigo aquam sine fine egerit. Quare qui peccatum originale definierunt carentiam iustitiae originalis, quam inesse nobis oportebat, quanquam id totum complectuntur quod in re est, non tamen satis significanter vim atque energiam ipsius expresserunt.”

134) *Institutio 1559*, II, i, 9: “Quatenus et mentem et cor occupet peccatum, mox videbimus. Hic tantum breviter attingere volui, totum hominem quasi diluvio a capite ad pedes sic fuisse obrutum, ut nulla pars a peccato sit immunis; ac proinde quidquid ab eo procedit in peccatum imputari. Sicut dicit Paulus (Rom. 8, 7), omnes affectus carnis, vel cogitationes, esse inimicitias adversus Deum, et ideo mortem.”

플라누스는 말하기를, “최초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 타락하였으며 하나님께 의해 필연적으로 버림받았지만, 그리고 비록 마귀가 권유하고 선동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타락한 것이며 그들은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는 그들 자신의 판단력을 부여받았다. 그리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인정과 영생의 희망을 상실하였으며, 그때까지 그에게 힘을 주었던 원초적 의로움과 은혜도 잃어버렸다. 그는 그때까지 향유하였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의 완전성과 축복도 상실하였다. 즉 아담이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에 부여한 모든 권세와 특권을 그로부터 박탈하였다. 인간은 이렇게 죄와 죄적 비참의 종이 되었으며, 그 사법적 판결로 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언한 하나님의 불쾌한 대상으로 전락하였다.”¹³⁵⁾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죄책이 그 원인이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초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¹³⁶⁾이라고 하면서 인간 타락의 가까운 원인에 대해 칼빈은 언급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멸망한 원인을 본성이 부패한 데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 치명적 상처가 본성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외부로부터 온 것인가 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의 것에 불평을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전7:29). 분명히 인간의 멸망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었음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허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¹³⁷⁾

2) 육적인 인간의 부패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

135) 하인리히 헤페, 「개혁과 정통교의학」, pp.454-455.

136) *Institutio 1559*, II, i, 10: “A carnis ergo nostrae culpa, non a Deo nostra perditio est; quando non alia ratione periimus, nisi quia degeneravimus a prima nostra conditione.”

137) *Institutio 1559*, II, i, 10.

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¹³⁸⁾이라고 말하면서 칼빈은 인간이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하였다.

칼빈은 계속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요3:6)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 전체를 묘사한다면(이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사도가 증언하는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6-7). 사람은 ‘육’이므로(요3:6)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요3:3)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인 것이다”¹³⁹⁾라고 칼빈은 말했다.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할 때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사60:2)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여호와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시리라’고(사60:19) 예언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위에만 비치고, 교회 밖에는 어두움과 맹목 상태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그의 증거”¹⁴⁰⁾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마음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엄격한 비난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17:9). 이것은 우리 본성의 전모를 보여 주는 가장 맑은 거울과 같다고 한다. 사도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없애고자 몇 가지 증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성경구절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

138) *Institutio 1559*, II, ii, 1.

139) *Institutio 1559*, II, iii, 1: "Si totus depingitur his Christi verbis (Ioann. 3, 6): quod natum est ex carne, caro est (ut evincere promptum est), valde miserum esse animal convincitur. Affectus enim carnis, teste apostolo (Rom. 8, 6), mors est; quandoquidem inimicitia est adversus Deum, eoque legi Dei nec subditur, nec subdi potest."

140) *Institutio 1559*, II, iii, 1: "Nam et ita de regno Christi vaticinatus erat Iesaias (60, 2), quum Dominum ecclesiae suae fore in lucem sempiternam promitteret; quum interim tenebrae obtegerent terram, et caligo populos. Quum in sola ecclesia exorituram Dei lucem testetur, extra ecclesiam certe non nisi tenebras et caecitatem rolinquit."

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참조, 시14:1-3, 53: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시36:1, 롬3:10-16, 18). 사도바울은 이런 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닌 아담의 후손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또 어느 한 시대의 부패한 풍습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한결같이 부패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단순히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큰 재난에 휩쓸렸고,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려는 의도라 한다.¹⁴¹⁾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만일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렘31:18). 그러므로 믿는 백성의 영적 구속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였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마의 멍에 밑에서 살고 있는 한, 죄인을 단단히 묶어 놓은 족쇄를 의미함을 볼 수 있다.¹⁴²⁾

그런데, 자유를 빼앗긴 의지에 대해 칼빈은 말하기를, 그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들거나 인도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신이신 것과 선하신 것은 똑같이 필연적이라 했다. 그러나 악마는 그의 타락으로 완전히 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일 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라고 언급하면서 죄의 필연성인 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¹⁴³⁾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으로(est ex lapsu)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ut

141) *Institutio 1559*, II, iii, 2.

142) *Institutio 1559*, II, iii, 5.

143) *Institutio 1559*, II, iii, 5.

vitiatus),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¹⁴⁴⁾고 칼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블레비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점에서, 아담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아담은 전혀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거나 강요당하거나 추진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범죄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엄하게 범죄하지 말라고 권하였다.”¹⁴⁵⁾라고 하였다.

D. 인간 자유의지의 자리

앞章에서는 아담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 논하였다. 타락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순종하여 바르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권이며 힘으로 받은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여 자신은 물론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 넣었다.

그렇게 자유의지는 온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한 것이었다. 아담이 타락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였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 우주 전체에 편만해 있는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4) *Institutio 1559*, II, iii, 5: "Haec igitur distinctionis summa observetur, hominem, ut vitiatus est ex lapsu, volentem quidem peccare, non invitum nec coactum; affectione animi propensissima, non violenta coactione; propriae libidinis motu, non extranea coactione; qua tamen est naturae pravitate, non posse nisi ad malum moveri et agi. Quod si verum est, peccandi certe necessitati subiacere non obscure exprimitur."

145) 하인리히 헤페, 「개혁과 정통교의학」, 이정석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21.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욕의 죄책이 그 원인이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초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은 가까운 원인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가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반면에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서의 자유의지의 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로서의 자유의지

1) 가까운 원인으로로서의 자유의지의 자리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29:29). 이 말씀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가까운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고 계시나, 먼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운 원인에 두고 있다. 신30:11-14절에서도 역시 율법을 가까운 원인에 두고 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1-14).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과 같이 비교와 추론, 나눔에 의해서 생기는 지식도 아니고, 원리에 의한 것도 아니며 자체적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장 확실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만히 알 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것도 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도 안다. 악한 것, 무한한 것, 의지의 활동과 내용도 안다.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 알 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에 의해서도 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다. 만물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 뿐이다.¹⁴⁶⁾

그래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는 행위, 선행이 개입할 여지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9:16). 이와 같이 만일 인간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홀 가운데만 있으며 또한 그 비밀의 자어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 '만일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에게서 즉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공홀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거기에 주님의 공홀이 없어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의 공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 어거스틴이 가장 잘 비판하였던 바이며, "이러한 생각이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공홀과 인간의 노력과의 일치를 끌어내려는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다"¹⁴⁷⁾라는 것이 또한 칼빈의 비판이었던 것이다.

칼빈의 경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문제가 첨예화되는 가운데 타락전과타락후 선택설이 논의되고 있다. 피기우스는 하나님은 그 자신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전혀 그 자신의 영광스런 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의 무한성(*propter suae bonitatis immensitatem*)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비록 하나님은 아무 것

146)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2001. 11. 26일) 내용 중에서 인용.

147)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82.

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인류를 그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tametsi nullius egentem, hominum tamen genus in suam gloriam creasse)고 답했다¹⁴⁸⁾(잠16:4, 출9:16). 계속해서 “피기우스가 잠언16장 4절¹⁴⁹⁾의 말씀과 관계해서 비난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였었다면, 택자와 유기자 사이의 구별은 사람의 타락 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다는 고백이 동시에 필연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서 피기우스는 유기자들의 아담 안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에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전에 이미 멸망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¹⁵⁰⁾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을 스스로 작정하였던 대로, 그렇게 유기자들의 멸망이 죄로 지금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는 결과가 그 원인보다 앞서게 하는 것은 모순적이기 때문”¹⁵¹⁾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사람은 자신의 제작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면서 피기우스가 이러한 것들을 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절도있게 생각해야 할 그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감취어진 뜻을 우리의 신앙이 멀리서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¹⁵²⁾고 그는

148) Ibid., p.293.

149) “보라,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에게 속한 것인 만큼, 그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확실한 죽음에 바쳐져서 태어나 그들의 멸망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도록 작정하셨다.”(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 *Institutio 1559*, III, xxiii, 6).

15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96: “Tertium fimem, qui satis clare et discerte illo Solominis loco exprimitur, quod propter se Deus omnia creavit, etiam impium ad diem malum(Prov. 16, 4), hac ratione impugnat: Quod si Deum respexisse dicimus, quid cuique futurum esset, simul necesse erit fateri discretionem inter electos ac reprobos priorem fuisse hominis lapsu, in mente divina. Unde sequetur, non damnari reprobos, quia perdit fuerint in Adam, sed quia ante lapsum Adae iam exitio devoti erant.”

151) Ibid., p.297: “quod sicut Deus ante conditum Adam apud se decreverit, quidnam illi et posteris futurum esset, iam peccato imputari reproborum interitus non debeat: quia absureum esset, effectum facere sua causa priorem.”

152) Ibid., p.297: “quid etiam impediēt, quin arcanum Dei consilium, quo praeordinatus fuerat hominis lapsus, qua decet sobrietate, procul adoret fides nostra...”

반문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보편구원론의 입장에서 어거스틴과 경건한 자들을 비난하는 피기우스의 상상에 대해 “유기자들은 보편적 죄책에 의해 결박되어져서 죽음 속에 버려져 의로운 심판을 받고있다”¹⁵³⁾고 한 어거스틴의 말로 비판하였다.

따라서 비록 칼빈이 “태초의 사람의 상태가 그 때까지 순수하게 남아 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창조전 작정론과 지금 파멸된 무리로부터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선택사이를 구별”¹⁵⁴⁾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표현된 선택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그의 주된 초점은 아니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피기우스에게 대담한 전체적인 답변의 틀들과 영원한 예정에 관한 그의 전반적인 신학의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가깝고 먼 원인의 언급을 이해하여 볼 때, 칼빈을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타락전 선택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⁵⁵⁾

자유 의지와 예정론이 충돌된다는 주장은 인식론의 한계이다. 예정론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예리한 문제이고 성경의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된다. 성경 전체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체의 기반이 되는 문제이다.¹⁵⁶⁾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중생을 모르는 그에게 그것은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스승인 내가 모를 수 있느냐? 고 하셨다. 그것은 구약에서 분명한 많은 구절이 없지만, 그것은 가까운 일이라고 하셨다. 신

153) Ibid., pp.297-298: “vere et merito eolligit, universali reatu sic obstrictos teneri reprobos, ut in morte relictis, iustum iudicium sustineant.”

154)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97: “Monendi autem sunt lectores, peraeque a Pighio utrumque damnari: Deum ab initio, quum adhuc integer foret hominis status, quod postea futurum esset, decrevisse et nunc ex perdita massa eligere quos voluerit.”; p.313: “Respondeo, tria hic esse consideranda: primo aeternam Dei praedestinationem, qua de toto genere humano, et de singulis hominibus quid futurum esset statuit, antequam cecidisset Adam, fixam et decreatam fuisse: deinde, Adam ipsum, pro defectionis suae merito, esse morti addictum: postremo, in eius iam perditis et desperatis persona sic damnatam esse totam progeniem, ut Deus, quos inde gratuito eligit, adoptionis honore dignetur.”

155)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2001. 11. 26일) 내용 중에서 인용.

156) Loc. cit. (2001. 12. 3일)

29:29절도 마찬가지이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신30:11-14절이 알려 주는 것에서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일 같은 것은 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계시하신다.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틀이다. 그분이 나타내시도록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율법은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이해이다. 율법은 가까운 원인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것으로 들어간다. 신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의지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빌2:13절 역시 마찬가지이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형식이다. 자유의지도 형식이 될 것이다. 자유의지는 은혜의 형식이다. ‘모든 것을 네게 두시고 행하신다’.

겔36:37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왜 인간에게 책임을 주시는가 하지만, 그러나 형식은 ‘너희가 기도하도록 하셨다’고 가르치신다. ‘너희가 기도해서 얻는 것처럼’ 그 형식을 가지도록 하셨다. ‘기도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태초에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서 겨우 산출되고 있는 것이 묻는 것, 대답하는 것, 의문을 품는 것 등의 의외의 문제이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라고 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것을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시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빚듯이 빚었다. 그리고 현상으로서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가? ‘왜 악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피조물성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 중의 하나가 ‘내가 잘못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닌 남 때문이다. 혹은 나를 지은 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악의 근원, 선의 근원,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실 때, 강박케 하는 일,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긍휼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강박케 하시는 일은 기뻐하시

는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서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까?’라고 한다면, 하나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다.¹⁵⁷⁾

2)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독특한 길

모든 존재가 은혜라고 한다면 결국 마귀도 은혜로 존재하고, 모든 존재하는 자가 가진 모든 것 즉,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소유 등이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분이 보증으로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생명의 자유지향적 공간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구조나 형식이다.¹⁵⁸⁾ 자유의지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율법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어떤 틀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인간에

157) Loc. cit.

158)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가치화 되어있음’을 김영규 교수는 그의 책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자유의지는 안에 공간이 있는 특별한 물방울과 같다고 상상할 수 있다. 즉 중심점이 존재하되 중심에서 무한히 개방되어 있으면서 지향적 방향만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다. 세포에 그런 자아가 있다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밖을 보는 눈과 같은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렁이처럼 피부가 그 창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 둘째로 수학적 결정론이다. 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처음 정보를 주고 물질의 지향속도에 따라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정보만 가진 경우이다. 셋째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제2원인으로 사용할 때, 즉 인간의 모든 지향적 행위들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경우,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다. 마음과 그 마음의 지향적 행위들을 모두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모두를 다스리신다면, 더 이상 마음은 그 지배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유의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아마 어렵게 이해되는 라이프니츠의 창문이 없는 모나드 개념이 아닌가 한다. 그 자체는 선물로서 자신의 독립성을 누리도록 한 것이지, 만물을 알도록 주어진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로서 가치화 되어 있다. 넷째로 자율적 생명체에게 선물로 주어진 지향의 중심점은 지금까지 이해되는 수학적 중심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점으로 표기될 수 없는 차원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중심에 대한 것이다. 수학적 개념으로 표상이 되지 않는 현저한 예로서 남아 있다.” -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p.13-14.

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유선택은 총체적 개방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폐쇄적인 상태(닫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실태이다. 따라서 그런 자유선택의 행위가 자유의지의 본질이나 실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실태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칼빈이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라 했을 때, 칼빈이 말하는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늘 목격하고 있는 주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것이 갖는 인과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지만, 먼 원인은 하나님께 감추어 놓은 원인들이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결국 “자유의지 역시 많은 물, 또 호홉하는 공기, 그리고 따뜻한 햇빛,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형태로서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마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 자체는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길이다.”¹⁵⁹⁾

“믿음과 성화 이 모든 것은 선택의 열매요, 결과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인 것이다.”¹⁶⁰⁾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신앙은 선택의 열매요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가까운 원인의 영역이며 인식 가능한 틀인 형식인(믿음)만 보기에, 그 형식인만을 구원의 원인으로 보려고 하고, 거기서 구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마치 그 형식에 의해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형식인인 믿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자유결정자인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사고의 구조이다.¹⁶¹⁾

159)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2001. 11. 26일) 내용 중에서 인용.

160)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omniaque gratiae dona)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이다(행13:48; 딤후1:1; 벧전1:5; prosp. epist. ad Aug.’ Aug. de praedest. Sanct. cap.10, cap.16, cap.17).” - 김영규, 「도르트 회의」,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pp.148-149.

161) “피기우스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깊은 성질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이 경우에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은 자유의지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일 여기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피기우스는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일 즉,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결정되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운 그런 이해의 영역은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먼 원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그런 모든 지식과 또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거기에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간접적이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다.¹⁶²⁾

따라서 자유선택의 행위나 그런 실태가 그런 구조가 존재하게 된 그 본질이나 근원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없고 더구나 대상과 관계해서 영원 전에 이루어진 영원한 예정과 자유의지의 충돌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빌 2:12, 13; 겔36:26-27, 36-37)과 자유의지의 그 자유와의 관계가 어떤 표상으로 이해할지가 어려운 것이다. 단순히 유기적이라고 한다면 기계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다만 칼빈이 지적한 바 있는 먼 원인들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반면, 가까운 원인은 필연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논리는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홀로 일하신다면, 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듯이 다시 명령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겔35:37), 그것은 명령이 외부세계로부터 오는 정보와 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의 자유로운 지향적 공간에 대한 직관이 거기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이 여전히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특성 혹은 인격성의 내용으로서 의식자체에

다'는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인간은 그의 미래의 상태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여하한 운명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294: “Quod Deus ad suae bonitatis naturam respiciens, eius capacem facere voluerit rationalem creaturam: quod sine arbitrii libertate fieri potuisse negat.”

162) 김영규, “Guilelmus Bucanus(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2001. 5. 21일) 내용 중에서 인용.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로마서에 나타난 ‘진노의 그릇(vasa irae, organa irae, instrument de l’ire)’과 ‘궁휼의 그릇(vasa misericordiae)’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영원한 예정과 비교할 수 없이 자유의지란 은혜 자체로서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길로서 창조되었다고 함이 정당하다. 그 자체가 영원한 예정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충돌하거나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³⁾

3)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중생의 영을 통해서(참조, 딤후3:5)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본성에는 없는 것이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심도 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예언자들을 따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시36:9).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사도바울의 확인또한 같은 뜻이다(고전12:3). 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만일 하늘에서(desuper)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외쳤다(요3:27)”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모세까지도 백성들의 건망증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신29:3-4).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일에서 우리는 나무토막 이라고 그가 말한다면 이 이상 더 표현할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신다(렘24:7)고 말하며, 확실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취 주셔야만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¹⁶⁴⁾이라고 하였다.

163)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p.14.

164) *Institutio 1559*, II, ii, 20.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견책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들어서거나 돌아오거나 할 때에 누가 심으며 물을 주는가를 모르게 되며 이것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 이외의 누군가가 저들의 마음에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가 구원하고자 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있어서나 땅에 있어서도 원하시는 것을 임의로 하시며 또한 미래에 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가 저항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그것에 관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실 때 물질적인 사슬로 인간을 결박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적으로 활동하시며 내적으로 마음을 불드시며 내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 속에 만들어 내는 저들의 의지에 의하여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⁵⁾라고 하였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그러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로 온다.¹⁶⁶⁾ 이것은 어떤 종류의 들음과 배움인가? 물론,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듣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165)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327-328: “Quum hominse per correptionem in viam iustitiae suae veniunt, seu revertuntur: quis operatur in cordibus eorum salutem, nisi ille qui quolibet plantante et rigante dat incrementum? cui volenti salvum facere, nullum hominis resistit liberum arbitrium. Non est itaque dubitandum, voluntati Dei, qui in coelo et in terra quaecunque voluit fecit, et qui etiam quae futura sunt fecit, humanas voluntates non posse resistere, quominus faciat ipse quod vult, quandoquidem de ipsis hominum voluntatibus, quod vult facit. Item: Quum vult adducere homines, numquid corporalibus vinculis alligat? Intus agit, intus corda tenet, intus corda movet: eosque voluntatibus eorum, quas in illis operatus est, trahit.”

16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회심시켜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경우, 그는 인간을 죄의 자연적 속박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시사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골1:13; 요8:34, 36; 빌2:13; 롬6:18, 22). 그러나 이 인간에게는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선한 것만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의지한다(갈5:17; 롬7:15, 18, 21, 23).” - A.A.하지,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p.213.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밝히신다. 교회의 갱신을 약속하실 때에, 구원을 하기 위해 모으신 사람들은(사54:7)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신다(요6:45; 사54:13).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특별한 일을 예언하신다면, 불신자들과 세속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교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¹⁶⁷⁾고 칼빈은 말한다.

2. 진정한 겸손

1) 자유의지론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위험성이 있다.

칼빈은 “자기의 참화와 빈곤과 별거벗음과 치욕을 깨닫고 완전히 타도되며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한다. 사람들이 자기에겐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한 그들에게서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빼앗길 위험성은 사라지게 된다.”¹⁶⁸⁾고 했다.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나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자신으로 자기를 잃어 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여 신성 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참으로 이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침입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창3:5) 원하라고 권고한 바로 그 모사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악마의 말이라면, 원수의 충고를 듣고 싶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의 말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자기의 힘이 많아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좋은 말이다. 그

167) *Institutio 1559*, II, ii, 20.

168) *Institutio 1559*, II, ii, 10: “ut quisque maxime suae calamitatis, inopiae, nuditatis, ignominiae conscientia deiectus est et consternatus, ita optime in sui cognitione profecisse. Non enim periculum est ne sibi nimium adimat homo, dummodo recuperandum in Deo discat quod sibi deest.”

러나 이 허무한 신념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 버리는 중요한 성경 구절에 귀를 기울여 그 만류를 받아야 한다.”¹⁶⁹⁾고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예컨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17:5). 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시147:10-11).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40:29-31). 이 모든 구절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원한다면 아무리 적은 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사44:3),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사55:1). 이 구절들은, 자기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허락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유사한 구절들도 있다. 예컨대 이사야서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다(사60:19). 물론 주께서는 종들에게서 해와 달의 빛을 빼앗으시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만이 홀로 그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므로, 그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¹⁷⁰⁾이라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칼빈은 진정한 겸손에 대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알려주고 있다.

169) *Institutio 1559*, II, ii, 10.

170) *Loc., cit.*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량과 교만을 삼가는 것을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겸손 이외에는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사탄이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우리 자신의 것은 죄뿐이 아닌가? 너 자신의 것인 죄를 버리라. 의는 하나님께로서 오기 때문이다.”¹⁷¹⁾라는 것이다.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자기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깨달을 때에, 그의 안에 있는 무기는 파괴되고 전쟁은 끝이 난다. 모든 불경건의 무기를 우리는 부수고 태워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 안에 도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다.”했고, 그래서 그는 시편 제70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의를 기억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 자신은 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아직 아무런 확신도 없는 사람이 기꺼이 굴복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능력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자애와 야심이라는 병을 버리라고 요구할 뿐이다.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것이다. 오직 나는, 이 병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진실한 거울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

171) *Institutio 1559*, II, ii, 11: “Porro humilitatem non intelligit, ubi homo aliquantae virtutis sibi conscius a superbia fastuque abstinet; sed ubi talem se vere sentit qui nullum habeat nisi in humilitate refugium, quemadmodum alibi declarat. Nemo, inquit, se palpet; de suo satanas est; id unde beatus est, a Deo tantum habet. Quid enim de tuo habes nisi peccatum? Tolle tibi peccatum, quod tuum est; nam iustitia Dei est.”

고 요구할 뿐이다.”¹⁷²⁾라고 칼빈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한다.

3.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

1) 모두 다 하나님의 것

칼빈은 “구원에 관한 영적 생명이라기 보다 육적 생명을 지향하는 행위들에 관한 부분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의지가 그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반대로 마음과 영혼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해가 되었을 것을 피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것”¹⁷³⁾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은총은 부패한 본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¹⁷⁴⁾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택자들 안에서가 아니면 실로 발견되지 않는다. 선택의 원인은 사람들 밖에서 찾아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들이 택함 받은 그같은 기쁘신 뜻으로부터 흘러 왔다. 선의 근원(boni exordium)은 다른 곳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¹⁷⁵⁾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72) *Institutio 1559*, II, ii, 11.

173) *Institutio 1559*, II, iv, 6: “In actionibus autem quae nec iustae per se, nec vitiosae sunt, et ad corpoream magis quam spiritualem vitam spectant, quam libertatem obtineat homo, etsi supra attigimus, nondum tamen explicatum est. Ego, etsi eos qui nullas esse sibi ad iustitiam vires tenent, quod in primis ad salutem cognitu necessarium est tenere fateor, non tamen puto hanc quoque partem negligendam, ut noverimus specialis esse gratiae Domini, quoties in mentem venit eligere quod e re nostra est, quoties eo voluntas inclinatur, rursus quoties et mens et animus defugit quod alioqui erat nociturum.”

174) *Institutio 1559*, II, iii, 3: “...inter illam naturae corruptionem esse nonnullum gratiae Dei locum, non quae illam purget, sed intus cohibeat.”

175) *Institutio 1559*, II, iii, 8: “Certe boni exordium non aliunde quam a solo Deo esse, facili et certa ratione liquet. Neque enim voluntas reperietur ad honorem propensa nisi in electis. Atque electionis causa extra homines

따라서 칼빈은 영적·생명의 전과정(*totum spiritualis vitae cursum*)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기되는 신인협동과 공로사상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앞선다(*praevenit*)는 것과 그 시초와 지속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그 자체만으로 유효하다(*efficacem a se ipsa Dei gratiam*)고 강조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을 일하신다(*operari in nobis velle*)고 언급(*빌2:13*)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오직 은혜의 일(*quidquid boni est in voluntate, esse unius gratiae opus*)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전12:6*)고 한 것은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그것들에 의해서 탁월한 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 안에서 자랑할 티끌조차도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ne tantillum quidem restare homini in quo gloriatur, quia totum a Dei est*)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은총에 의해서 선행되어진다는 한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할지라도,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여호와 의 일이므로 수종하는 의지로서 선행하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의지가 없이는 은총은 일할 수 없으며, 은총이 없이는 의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은총이 바로 의지 자체에 일한다(*ipsam quoque voluntatem operetur gratia*)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⁷⁶⁾

칼빈은 우리 의지 안에 있는 선하고 바른 것들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회개를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creatio*)라고 성경에서 증거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박탈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돌리는 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조되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로부터는 선한 것들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개조된 후에도 선한 것들인 한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항상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quaerenda est; unde conficitur rectam voluntatem non esse homini a se ipso, sed ex eodem beneplacito, quo ante mundi creationem electi sumus. fluere."

176) *Institutio* 1559, II, iii, 6-7.

이와 같이 그는 “반항에로 끌리는 마음의 완고한 욕구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cogitur) 시정 사이의 대조가 항상 주목되어야 한다”¹⁷⁷⁾고 강조하였다.

의지가 심히 타락되고 부패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집어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칼빈은 어거스틴을 따라 “인간 안에서 새로운 의지가 창조되는 것(nova in homine voluntas dicatur creari)”¹⁷⁸⁾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의지가 이끌려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는 성령의 지배로 나타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지배되어지고 있을 때에는,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없이는 지배되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시초는 우리의 것이 말소되는 것이다. 동시에 자극하고, 행동하고, 추진하고, 지탱하고, 지속하는 것이 없이는 지배되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¹⁷⁹⁾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처지에 자신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중생 안에서 그의 택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주어지기를 적절하게 구했다고 하였다. 즉, 죽은 것 같은 자가 다시 창조되어 사탄의 소유권으로부터 성령의 도구(spiritus sancti organum)가 되기를 간구했다”¹⁸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열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tamen hoc quoque precandi desiderium a Deo esse)”¹⁸¹⁾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선행의 처음 부분은 의지요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강한 노력인데, 두 부분 모두 하나님이 원작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 우리가 의지나 노력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사칭한다면 주에게서 훔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더구나 선한 의지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육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 싸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기 위해서는 성취에 이르기까지 노력의 항구성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심정이 잘 정돈

177) *Institutio 1559*, II, iii, 9: “Semper enim notanda est antithesis inter perversum cordis motum quo fertur ad contumaciam. et correctionem hanc qua in obsequium cogitur.”

178) *Institutio 1559*, II, v, 15.

179) *Institutio 1559*, II, v, 15.

180) *Institutio 1559*, II, iii, 9.

181) *Institutio 1559*, II, iii, 8.

된 사람들도 만약 견인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없어서 쉽게 사라지거나 새나간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가, 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의 열망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노력으로 분기되고 움직여지는 것은 주의 일이다. 두 번째로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지치지 않고 성취를 향해 줄곧 전진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일들 안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과 끝까지 계속 견인하는 것도 모두 주께서 하시는 일”¹⁸²⁾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나 반항이나를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의지를 효과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원하고 있는 사람을 이끄신다는 것은 배척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한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 자체를 효과적으로 만드신다(*ipsum velle in nobis efficere*)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지도하고 추진하고 다스려져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possessio*)처럼 지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스겔(겔11:19, 36:27)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새 영을 주고 계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시는 목적은 “단지 그들이 그의 계명들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간다(*re ipsa ambulat*)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외 없이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르쳐져야만 하지만, 그러나 천상의 은총이 불어주신 사람들이 마침내 구하기 시작하므로 이 찬양의 아주 적은 부분일지라도 그에게서 탈취되어서는 안된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중생 되어져서 그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여지고 지배되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택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

182) *Institutio 1559*, I, iii, 9: "Porro quoniam carnis nostrae pondere bona etiamnum voluntas obruitur, ne emergat, subiunxit, eluctandis eius pugnae difficultatibus, conatus constantiam ad effectum usque administrari...etiam qui probe affecti sunt, tot esse distractionibus obnoxios ut facile evanescent vel effluent, nisi ad constantiam firmentur...ut illius sit, quod recti amorem concipit voluntas, quod in eius studium inclinatur, quod ad eius sectandi conatum incitatur et movetur; deinde quod electio, studium, conatus non fatiscunt, sed ad effectum usque procedunt; postremo, quod homo in illis constanter pergit, et in finem usque perseverat."

의 말들로부터(요6:44)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효력적으로(efficaciter) 지배되기 때문에 불굴의 감정(inflexibili affectu)으로 따른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견인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항구성(efficax ad perseverandum constantia)이 확증(요일3:9)되므로, 소피스트들이 상상하는 중용적인 활동(medium motum)-누구든지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자유가 있다-을 분명하게 배제되는 것을 본다¹⁸³⁾고 하였다.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마치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근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적이 되게 하는 것처럼, 처음의 은총의 바른 사용이 후에 따르는 은총들에 의해서 보상된다고 말해져서는 안된다. 보상(remuneratio)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기대 되서는 안된다. 신자들이 선행하는 은혜들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이후에 더 큰 은혜들이 증가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신자들에 의해서 기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 사용도 또한 주님으로부터이고 이 보상은 그의 무상의 자선으로부터 나온다.”¹⁸⁴⁾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바른 기대나 경건한 감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어거스틴이 역사하고 있는 은총과 협동하고 있는 은총 사이의 구별을 사용하였을 지라도, “마치 각자 자신의 고유한 활동으로부터 상호 협동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배분된 것이 아니라, 은총이 점점 더하여짐(gratiae multiplicatio)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이 인간의 선한 의지에 선행하고, 이 의지 자체도 선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지 자체가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¹⁸⁵⁾고 칼빈은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의지하는 것(velle)은 우리들에게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찬양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

183) *Institutio 1559*, II, iii, 10.; J.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CO VIII, p.276: “Ex istis nemo perit, quia omnes electi, et secundum propositum, non suum, sed Dei. Si quidem non tale modo illis perseverantiae donum confertur, ut postea declarat, quo possint si velint: sed quo non nisi perseverantes sint.”

184) *Institutio 1559*, II, iii, 11.

185) *Institutio 1559*, II, iii, 11.

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고 부적절하지 않게 말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우리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둘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으로 이끌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요, 그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그 노력도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¹⁸⁶⁾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의 이런 언급은 “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여 은총을 부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인간을 향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찬양하려는 것”¹⁸⁷⁾이었다.

2)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무지한 자들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을(고전 15:10)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곡해한다.”¹⁸⁸⁾고 칼빈은 지적한다.

“그들은 사도바울의 이 발언을, 자신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낫다고 말하면 너무 교만하게 들릴 것 같았기에 바울은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총에 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을 시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 시정 내용을 보면, 자기를 은총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었다. 다른 점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어렵지 않은 문제에 많이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칼빈은 말하면서, “사도는 주의 은총이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은총에만 돌리는 의미에서 이 수정을 한 것이다.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모호한 표현 때문에 그들은 속았고, 특히 라틴어 번역이 줄여서 히브리

186) *Institutio 1559*, II, v, 15: “quia tamen nobis naturaliter ingenitum est velle, non abs re ea agere dicimur quorum laudem sibi iure Deus vindicat; primum, quia nostrum est eius benignitate quicquid operatur in nobis, modo non a nobis esse intelligamus; deinde quia nostra est mens, nostra voluntas, nostrum studium, quae ab eo in bonum diriguntur.”

187) *Institutio 1559*, III, xv, 4.

188) *Institutio 1559*, II, iii, 12: “Atque huc falso per incitiam torquetur illyd apostoli (1 Cor. 15, 10): plus omnibus iis laboravi; non ego, sed gratia Dei mecum.”

어 관사의 표현력을 잃어버렸다. 만일 축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는 은총이 자기의 동역자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은총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라고 했다. 또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사람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사보다 앞서는 때가 많지마는 모든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런 의사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지르시며’(시59:10, 의역),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시23:6).”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그를 앞지르며,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 베르나르두스도 어거스틴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제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저를 이끌어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걸음이 느린 저를 이끌어 달리게 만드소서.’¹⁸⁹⁾

3)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가운데 움직인다

“하나님께서서는 섭리의 길을 트고자 하실 때마다 외면적인 일에서까지도 사람들의 의지를 굽히며 돌리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자유를 지배하지 못 할만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든 좋든간에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고무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바꿔말하면, 가장 단순한 일을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쉬운 일에서조차 용기가 나지 않는 것에 반해 가장 어려운 일에 부딪쳤을 때 지혜가 생각나며, 결정적인 중대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을 배제할 용기가 생긴다.”¹⁹⁰⁾

189) *Institutio 1559*, II, iii, 12.

190) *Institutio 1559*, II, iv, 7: “Deum, quoties viam facere vult suae providentiae, etiam in rebus externis hominum voluntates flectere et versare, nec ita esse liberam ipsorum electionem, quin eius libertati Dei arbitrium dominetur. Velis nolis, animum tuum a motione Dei potius quam ab electionis tuae libertate pendere, haec quotidiana experientia reputare coget, quod te in rebus minime perplexis iudicium et mens saepe deficit, in rebus factu non arduis animus flaccescit; rursus in rebus obscurissimis expeditum statim offertur consilium, in magnis et periculosis animus omni difficultate superior suppetit.”

이런 의미로 칼빈은 솔로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와 의 지으신 것이니라’고 한 말을 이해한다(잠20:12)고 하였다. ‘그는 귀와 눈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신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한 것은(잠21:1) 類 전체를 (그 일부인) 한 가지 種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모든 예속에서 해방된다면, 이 특권은 누구보다도 왕의 의지에 속할 것이다. 왕의 의지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왕의 의지가 하나님의 손으로 굽혀진다면, 우리들의 의지도 그 처지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선하게 된 의지를 선한 행동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므로, 선한 의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의지들까지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하신다. 혹은 은혜를, 혹은 벌을 주시려고-그리고 참으로 가장 비밀한, 그러나 가장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기울이시는 것이다.’¹⁹¹⁾

“사람의 자유선택의 능력은 사태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한다. 가장 높은 군주들도 만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그들은 사람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적절하고 교묘하게 증명한 줄로 생각한다. 여하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사람의 내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면적인 성공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는,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결심한 일을 모두 실현하며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점에서 판단의 선택(iudicii electionem)과 의지의 경향(voluntatis affectionem)이 자유로 우냐고 묻는 것이다. 만일 사람의 이 두 가지가 다 충분히 자유롭다면, 무엇이 두루 박힌 포도주 통에 갇힌 아틸리우스 레굴루스(Atilius Regulus)에게도 광대한 지역을 지배한 가이사 아구스도(눅2:1)에 못지 않은 자유의지가 있었을 것이다.”¹⁹²⁾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191) *Institutio 1559*, II, iv, 7.

192) *Institutio 1559*, II, iv, 8. - 카르타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참살을 당한 Regulus의 덕행을 Cicero와 Horace와 Seneca와

칼빈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secretum Dei impulsum*)이고,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은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ex secreta manus Dei agitatione*)온다고 믿었다. 더구나 어거스틴에 따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은 도발적인 필연도 아니요 본성적인 필연도 아니라”¹⁹³⁾고 하면서, 스킨라적인 구별인 무엇에 따른 필연과 절대적 필연(*necessitas secundum quid et absoluta*), 결과해야 할 필연과 결과의 필연(*necessitas consequentis et consequentiae*) 사이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인정은 하나님의 의지 밖에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요 제일원인이라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게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 운명(*Fortuna*)이나 우연(*Casus*)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permissio*)이란 말도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우연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만물들의 질서, 이유, 목적과 필연성이 대부분 하나님의 의논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견해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다.¹⁹⁴⁾

그 밖의 로마 문필가들이 칭찬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들의 비난에 대항해서, 로마의 신들이 충실한 사람을 구출하지 못했다는 실례로서 레굴루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193) *Institutio*, 1559, I, xvi, 9: "Interea quod statuit Deus, sic necesse est evenire ut tamen neque praecise neque suapte natura necessarium sit."

194)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1, pp.15-16.

III. 결 론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 의지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석들이 구구하고 다양한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확신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이 아니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분개하며 싸워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 사상¹⁹⁵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변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주장했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예정을 모호하고 애매하게 만들어서 예정론이 마치 칼빈이 주장한 사변적인 신학에 불과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렇지만 성경과 바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적인 예정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가르치며 그 진리가 이 땅에 심어지도록 평생동안 힘쓰고 그 진리를 위해 싸웠다. 그렇게 귀중한 진리들이 현대에 와서는 마치 보잘것없는 무미건조한 교리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정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굳게 서있어야 하는 대단히 귀중한 진리인 것이다. 특히 예정론은 성경을 여는

195)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예정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예지를 조건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이들은 하나님도 의지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여 살피시고 기다리시는 태도를 취하신다고 생각했다. 그 의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살펴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全知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 즉 조건지어진 미래 사건들, 또한 모든 절대적인 미래 사건들을 미리 아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 예지에 따라 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은 예수회(the Jesuits)에 의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모든 개혁신학자들(all Reformed theologians)은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다. - H.Bavinck, *The Doctrine of God*, pp.189-195.; Heinlich Heppel, *Reformed Dogmatics*, trans. G.T. Thomson, Baker Book House, 1978, pp.77-81.

열쇠와 같은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했다. 이러한 진리가 잘 정립된 상태에 있다면 인간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그리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의 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그렇지만 인류의 시조는 그 특권으로 타락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게 된 것이다. 그 파멸은 돌이킬 수 없는 죄요, 죽음이며,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사도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처절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것을 역설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엡2:1)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¹⁹⁶라고 했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¹⁹⁷고 했다. 그렇게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죽은 상태에 있는 자가 무엇을 드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이요 믿음을 해치는 독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칼빈이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그렇게도 힘쓰며 전해준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인간들에게는 무슨 공로가 있을 수가 없으며, 죄인인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꾀변은 버려야 한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칼빈이 알기 쉽게 설명해준 네 가지 원인¹⁹⁸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은 것임을 바르게 깨달아

196) “omnes enim peccaverunt et egent gloriam Dei”(Romans 3:23).

197) “propterea sicut per unum hominem in hunc mundum peccatum intravit et per peccatum mors et ita in omnes homines mors pertransiit in quo omnes peccaverunt”(Romans 5:12).

198)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는 어떤 원인도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구원의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 영생을 얻는 動力因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둘

야 할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오직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해 나오는 죄악뿐임을 알게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의해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선을 향해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고자 힘쓰며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자유선택이 첫 사람 아담에게는 있었지만 그 후손인 인류에게는 총체적 개방상태에서 자유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단혀진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실패인 것이다. 그런 자유선택의 행위가 자유의지의 본질이나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실패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늘 목격하고 있는 주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것들이다. 그런 것이 갖는 인과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형태로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마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 자체는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형태로서의 그러한 독특한 길인 것이다. 그것조차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진리의 내용이 혼탁한 현실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로 인한 확신으로 바른 성도의 삶이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이 시

제, 質料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한다(롬3:23-24). 우리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질료인이 여기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形相因은 믿음이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롬3:25)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을 가르친다. 넷째, 目的因에 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롬3:26)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고 한다. - *Institutio 1559*, III, xiv, 17.

대의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일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꿇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는 밝은 시대를 기대해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et cognoscetis veritatem, et veritas vos liberos reddet.)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i Deo Gloria!)

참고문헌

Bavinck, Herman. *The Doctrine of God*, Translated by William Hendriksen, The Bath Press, 1977.

Calvinus, J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Calvinus, J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Heppe, Heinlich. *Reformed Dogmatics*, Translated by G.T. Thoms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7.

Knox, John. *An Answer to a Great Number of Blssphemous cauillations written by an Anabaptist, and adversarie to Gods eternal Presdestination, The Works of John Knox*, ed. by David Laing, Vol. 5, Edinburgh, 1856.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_____,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_____, 「조직신학편람 I」,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_____,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

_____, 「17세기 개혁신학」,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영음사, 1989.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종흡의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86.

_____, 「영·한 기독교강요」, 편집부 역, 기독교성문출판사, 1990.

_____,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김기수 역, 생명의 말씀사,
1991.

하인리히 헤페, 「개혁과 정통교의학」, 이정석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A.A.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
트, 1998.

D.스틸/C.토머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상화 역, 도서출판 엠
마오, 1996.

김지훈, 「William Twiss의 예정론과 그의 예정론이 후기 Gomarus에
게 미친 영향」,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M)청구논문,
2002.

안성균, 「칼빈의 가까운 원인들과 먼 원인들에 대하여」, 안양대학교신
학대학원 석사학위(Th.M)청구논문, 2002.

임성찬,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해
서」,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M)청구논문, 2002.

조성재,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가 갖는 신학적 객관성에 관하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Th.M)청구논문, 2000.